라디오인천

90.7mhz SUNNY FM

인천의 새로운 FM방송 탄생

최고의 방송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행복느낌 90.7 우리함께 SUNNY-FM

굿모닝 인천 (월요일~금요일 매일 아침 7시~9시)
인천의 정치, 경제, 문화와 다양한 생활정보

글로벌 인천 (금요일 아침 8시30분~9시)
인천지역현안에 대한 명사들의 통쾌한 토론

인천포럼중계 (매주 토요일 아침 7시~8시30분)
다양한 소재로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유명 강연자들의 특강 중계

SK 와이번스 프로야구 중계 (매주 토 · 일요일)
인천시민들을 위해 우리지역 연고팀인
SK와이번스 주말 전 경기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중계

박근혜의 뮤직박스 (매일 오전 11시~오후 1시)
톡톡 튀는 그녀와의 유쾌 상쾌 데이트!

DJ채리의 SUNNY MUSIC SHOW (매일 오후 1시~2시)
강력한 파워 리믹스가
오후의 나른함을 한방에 날려드립니다

김광한 팝스다이얼 (매일 오후 2시~4시)
음악 DJ역사의 산증인과 함께

장용과 세리의 신나는 라디오 인천
(매일 오후 6시~8시)
지루한 퇴근길을 웃음과 음악으로 채워드립니다

오세준의 P.S. I LOVE U (매일 자정~새벽 2시)
모두가 잠든 시간… 유쾌한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http : //www.sunnyfm.co.kr
tel : 032-83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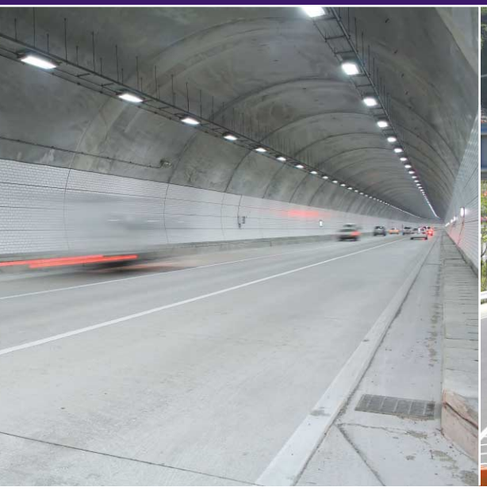
Good Morning 2006년은 아시안게임 유치의 해

INCHEON

굿모닝인천

2006 | 6

인천광역시
www.incheon.go.kr



빠르고 경제적인 만월산터널
시간단축! 기름절감!

서 울
중동IC
송내IC
부평동

⟷

인천시청
문학경기장
남동공단
송도신도시

■간석4거리 ⇔ 동소정4거리

	경인국도 (주안산길)	만월산터널	비 고
거 리	4.7㎞	2.7㎞	2km단축
시 간	10분	3분	7분 단축
승용차 유류비	1,634원	391원	543원 절감 (통행료 포함)
택시 주행료	3,000원	1,700원	600원 절감 (통행료 포함)

- 승용차 유류비는 배기량 2,000CC, 연비 10㎞/h 휘발유 승용차기준
- 택시 주행료는 159m당 100원 기준

■위치

만월산터널(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산35-2
전화 : 032)467-9200 / FAX : 032)467-2679

2006년은 아시안게임 유치의 해

굿모닝인천

2006.6 (통권 150호)

표지설명 _ 여름을 이길 시원한 물줄기를 내뿜는 서곶근린공원 분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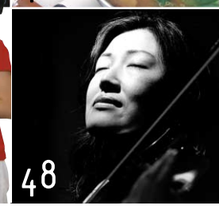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공보관 이부현
공보담당 사무관 유승준

편집장 유동현
취재 편집위원 정경애 · 편집위원 김미희
어시스턴트 유미옥
사진 심영보 · 하장원(시 공보관실)
김성환(자유사진가) · 김정식(자유사진가)

발행처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 (구월동 1138번지)
발행일 2006년 6월 1일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인쇄 인천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굿모닝인천〉은 **http://www.incheon.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04 **르포** | 인천대교 건설현장
08 **Beat! Play! Fun!** | 상생과 공존 10주년 부평풍물대축제
10 **이색공간** | 옥상의 변신과 문화
14 **아시안게임 리포트** | 2014년을 위해 뛰는 사람들
16 **인천200% 즐기기** | 특색공원8
20 **문화마을 순례** | 사진그룹 IMAGO
22 **이달의 공연** | 아카펠라뮤지컬 〈거울공주평강이야기〉 외
24 **Incheon & Arts Program** | The Base Gang
25 **인천시향과 함께 하는 11시의 콘서트** | Brunch with Orchestra Concert
26 **정보뱅크** | 토요휴업일 프로그램
29 **굿모닝時評** | 태산이 높다 하되
30 **굿인천 굿뉴스** | 송암미술관 일대 문화단지로 외
34 **경제자유구역 뉴스** | 국내 첫 UN기구 개소 외
35 **동서남북** | 90.7㎒ 라디오인천
36 **아이들과 함께 동네 한바퀴** | GM대우 인천유나이티드 FC 홍보관
40 **인천음식 요리조리** | 꽃게탕
42 **김치 찰칵**
43 **야심만만 재테크** | 글로벌시대 해외투자에도 관심을
44 **만화로 보는 옛날 옛적에 인천은 ⑥** | 김상용과 충렬사
46 **참살이 동의보감** | 고지혈증
47 **현장** | 시민의 웰빙센터 숭의종합경기장
48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 | 바이올린, 인생, 그 슬픔과 기쁨의 주인공 조화현 씨
52 **글마당 생각마당** | 이번달 주제 '취미'
53 **Info Box** | 시청 종합민원실 임시 이전합니다 외
58 **세 · 상 · 만 · 사 · 仁 · 川 · 萬 · 寫** | 6월 그들은 다시 살아난다
59 **Go for 2014 INCHEON** | 인천의 아들 2014 아시안게임 유치위해 뛴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됩니다. 구독문의 (032-440-2070) 광고문의 (032-440-2071)

세계의 하늘로 닿는 ‘바다 고속도로’

하늘로 승천하려는 용의 트림인가, 바다 한가운데서 굉음이 울린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신전(神殿)인가, 시퍼런 바다 한가운데 거대한 기둥들이 세워져 있다. 저 다리가 완공되는 날, 대한민국은 여의주를 입에 문 용처럼 세계의 하늘로 승천할 것이다.

글 • 유동현 (본지 편집장)
사진 • 김정식 (자유사진가), 삼성JV 제공

바다는 하나의 작은 공단(工團)

1년 전, 2005년 6월 16일 송도국제도시. 바다와 인접한 남단 지역에서 발파음이 터지는 순간 오색 축하풍선이 하늘을 수놓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국제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약 12㎞에 이르는 인천대교 건설의 첫 삽을 뜨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다리 공사는 얼마만큼 진척된 것일까. 5월 말 현재 전체 공정의 22%를 마친 인천대교 건설현장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바다로 나섰다. 해상현장으로 나가기도 전에 지상의 거대한 작업장 모습에 눈과 입은 이미 벌어지기 시작한다. 삼성JV(Joint Venture)는 작업의 효율성과 경제성 그리고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웬만한 공장의 규모를 넘어서는 4만평 부지의 제작창을 송도국제도시 끝에 설립했다.

세계적인 프로젝트라는 명성에 걸맞게 엄청난 기계화 장비들이 가동되고 있는 이곳은 해상현장에서 실제로 공사에 사용될 자재를 생산하는 곳이다. 다리를 놓을 때 사용되는 집채 만한 강관파일과 PC House(물막이 거푸집) 그리고 국내 최초로 자동화로 만들어지는 철근망 등 온갖 자재와 부품들이 이곳에서 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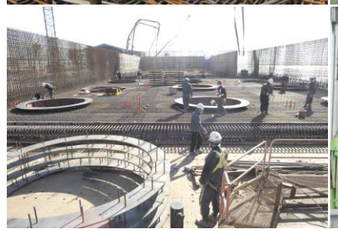
제작창 한쪽에 있는 계류장에서 시찰선 인천 브릿지호(45인승)에 몸을 실었다. 영종도 방향으로 출발 한 지 10분가량 지나자 송도갯벌타워의 모습은 점차 뒤로 멀어지고 바다 위 작업현장이 어렴풋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쉴새없이 장비와 부품을 실은 커다란 바지선들을 끌고 해상현장으로 가는 예인선들의 모습이 보였다. 마치 일개미가 자신보다 몇 배 큰 먹이를 물고 가는 모습과 같았다.

현장에 거의 다다르자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거대한 팔뚝을 가진 해상 크레인과 마주쳤다. 국내에 3대 밖에 없는 3천톤 급 플로팅 크레인으로 주탑에 사용되는 PC House나 상판을 인양하고 들어올리는 천하장사 '무쇠팔'이다. 다리 공사 주변에는 작업대로 쓰이는 배들과 설비를 장착한 배들이 하나의 선단을 이루며 떠있어 작은 공단(工團)을 연상케 한다.

초특급 태풍과 강진에도 '고요'

계류장을 떠난 지 30분 남짓, 드디어 주탑 건설현장에 다다랐다. 주탑은 교량을 지지하는 다리의 중심 교각으로 동쪽과 서쪽에 하나씩 세워진다. 역Y자형의 미끈한 각선미를 뽐낼 주탑의 높이는 238.5m로 63빌딩과 맞먹는다. 현재는 3차례에 걸친 주탑기초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마친 상황이다. 아직은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것보다 물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훨씬 긴 상태이다. 주탑을 지지하는 24개 말뚝은 해저 약 60m에 있는 단단한 연암층에 강력하게 박혀 있는 상태이다. 올 말이나 내년 초쯤 되면 중심 교각의 주탑이 물위로 세워지게 되기 때문에 인천대교의 위용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인천대교는 2003년 한반도 남부를 강타한 매미 같은 초특급 태풍도 미풍으로 느껴질 만큼



안전하게, 리히터규모 7의 강진에도 끄떡없도록 튼튼하게 세워지고 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인천항으로 향한 선박들이 주탑 사이 800m 바닷길을 수시로 오고 가고 있다. 사장교 구간에는 항해하는 선박이 교각과 충돌하는 불의의 사고를 막기 위해 10만톤급 선박이 10노트의 속도로 항해할 때를 기준으로 충돌방지공을 설치하는 등 교량보호와 통항 선박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여름은 바다의 계절. 그러나 시원한 여름바다를 이곳에서는 기대하기 힘들다. 30도에 가까운 초여름 날씨 속에 안전모와 구명조끼를 입은 근로자들의 얼굴에는 허연 소금기가 번져있다. 열사(熱沙)의 나라 중동의 사막 한복판에서의 작업 못지않게 힘든 작업이다.

2009년 10월 푸른 바다와 파란 하늘을 이어 줄 12㎞ '희망의 다리' 인천대교가 완성돼 수많은 자동차가 바다 위를 달리는 한 폭의 그림을 그리며 오늘도 그들은 길 잃은 갈매기를 벗 삼아 바닷물보다도 더 짠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경이로운' 다리

올 초 영국의 한 언론은 인천대교를 '경이로운 세계 10대 건설 프로젝트(10 wonders of the construction world)'의 하나로 선정했다. 광활한 바다 위에서 진행되는 건설공정이 복잡하고 공사규모가 엄청나며 각종 첨단기술이 도입됐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2009년 10월 완공 예정인 인천대교는 왕복 6차로 본교량 12.34㎞, 연결도로 8.93㎞로 총연장 21.27㎞ (사장교 1,480m 접속교 1,778m 고가교 8,400m)인 세계 5대 사장교(斜張橋)이다. 사장교는 일반교량의 교각에 해당되는 주탑에 케이블을 비스듬하게 설치하여 이 케이블이 주탑과 상판을 연결하여 지지하는 형식의 다리이다. 세계적인 사장교는 일본의 타타라교, 프랑스 노르망디교 등이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서해대교(7.3㎞)가 가장 긴 사장교이다.

총사업비 1조2,900억원이 투입되는 인천대교는 영국의 AMEC사와 우리시가 공동으로 설립한 KODA개발이 주관하고 삼성 · 대림 · 대우 · GS 등 우리나라 대표적인 건설사들로 구성된 삼성JV에서 시공을 담당하고 있다.

Beat! Play! Fun!

상생과 공존
10주년 부평풍물대축제

6월 7일(수)~11일(일) 부평로 & 신트리공원

인천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한 부평풍물대축제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풍요롭던 부평의 옛 모습을 되찾고 삭막한 회색 도시에 풍물의 흥겨움을 불어넣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시작한 이래 현대 사회에서 사라져가던 풍물이 도시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올해는 6월 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0가지 테마의 행사를 준비해 시민들과 함께한다.

축제 I 초대

6월 7일 KBS국악관현악단과 안치환, 안숙선 등이 참여하는 전야제를 시작으로 부평풍물대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축제 II 화합

6월 8일 축제개막식과 함께 신트리공원에서 22개동 풍물패의 경연대회로 신명나는 한판을 벌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민속그네뛰기가 열려 화합의 장을 이룬다.

축제 III 젊음

6월 9일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를 비롯해 6월 10일~11일에는 전국학생풍물경연대회와 인천학생풍물경연대회가 벌어진다.

축제 IV 상생

6월 10일 해외공연단과 남사당놀이패의 줄타기 공연에 이어 성공적인 거리축제를 알리는 개막공연이 창작공연으로 열린다. 11일에는 풍물명인전과 줄타기공연이 펼쳐져 풍물의 진정한 고수의 시범을 볼

축제 V 교류

6월 10일~11일 진주삼천포농악, 평택농악 등 12종류의 중요지방문화재를 한자리에서 만난다. 각 지역의 무형문화재 속에 녹아있는 우리 전통과 예술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다.

축제 VI 공존

6월 10일~11일 자유로운 창작의 장에는 새로운 도전이 연출된다. 드럼서클, 재활용 타악기 연주단을 중심으로 관객이 직접 연주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의 참여무대를 선보인다.

축제 VII 만남

6월 10일~11일 보고 즐기는 축제를 넘어 참여하여 만드는 열린 축제의 장으로 다양한 개성이 모인다. 주민동아리, 풍물동아리, 미8군 군악대의 공연과 전통 성년식, 할아버지들의 경합이 예상되는 왕 장기대회, 힘겨루기의 한판 승 씨름대회까지 다양한 만남이 이루어진다.

축제 VIII 추억

추억 6월 10일~11일 아스팔트가 깔린 도로. 그 옛날은 흙길이었음을 상상해본다. 논두렁, 밭두렁이었을 곳에서 곡식을 타작하고 남은 짚을 엮어 새끼 꼬고, 가마니를 짜던 추억 속으로 빠져든다.

축제 IX 공감

6월 10일~11일 축제10주년 기념전시, 세계타악기전시, 축제사진전시 등 축제 10년의 발자취를 더듬어본다. 아울러 축제 100년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학술행사와 문화예술과 기업과의 아름다운 만남 등이 기다린다.

축제 X 염원

6월 11일 축제의 마지막. 모두가 하나 되고 다음을 기약하는 축제의 하이라이트 대동마당이 펼쳐진다. 서로가 하나의 마음으로 뭉치고 화합하는 대동제가 축제의 마지막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대동마당으로 꾸며진다.

문의 _ 부평구축제위원회 (www.bpf.or.kr 509-7515~7)
축제일정 본지 57쪽

인천에서 '풍물'을 만나다

인천 곳곳에는 우리 전통 문화를 손쉽게 만날 수 있는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열린다.

문학경기장 앞에 자리잡은 **도호부청사**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전통공연이 정기적으로 펼쳐진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은율탈춤, 마당극, 어린이 흥부놀부 뮤지컬, 사자춤 등의 전통공연이 열린다. 공연 후에는 전통 체험마당에 참여할 수 있다. 짚풀공예, 떡메치기, 다도, 예절교육, 제기 만들기 등이다. 도호부청사의 전통공연은 4월부터 6월까지 계속되고 여름 한철 휴식 후에 9월부터 11월까지 다시 열린다. (**문의** _ 서해안풍어제보존회 425-2692)

수봉공원 기슭에 자리잡은 **수봉민속놀이마당**에서는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중요무형문화재 초청공연이 열린다. 은율탈춤을 필두로 인천의 무형문화재와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의 공연을 만날 수 있다. 상반기 공연은 4월 30일부터 6월 4일까지 열린다. 4월 30일 은율탈춤을 시작으로 매주 일요일마다 예천통명농요와 주대소리, 강화 용두레질노래, 수영야류, 황해도 평산소놀음굿 등이 차례로 공연된다. 더위가 한풀 꺾이면 하반기 공연이 9월말부터 10월말까지 다시 준비돼 인천에서 우리 전통예술을 자주 감상할 수 있겠다. (**문의** _ 은율탈춤보존회 875-9953)

한편 인천에는 풍물이 상설공연 되는 작은 극장도 있다. **풍물패잔치마당소극장**이 그곳이다. 풍물패잔치마당은 난타, 국악, 타악 등 우리 전통 선율을 감상할 수 있는 공연을 상설공연한다. 6월에는 '타락(打樂)'이라는 작품을 매주 금요일 7시 30분부터 무대에 올린다. 한편 학생들을 위해 노는 토요일에는 해설이 있는 국악한마당을 10시부터 진행한다. 작품을 감상하고 직접 악기를 체험해 봄으로써 우리 가락의 진수를 느낄 수 있다. (**문의** _ 501-1454)

전통공연을 보고 즐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통 국악을 실제로 배워볼 수 있는 곳도 있다. 수봉공원에 자리잡은 **국악회관**은 일반인들이 국악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가야금, 민요 · 장구, 풍물, 한국무용, 판소리, 모듬북, 해금, 대금, 단소 등의 수강프로그램을 개설해 놓고 있다. (**문의** _ 875-4644, 876-8364)

이색공간 | 옥상의 변신과 문화

오르라, 그리하면 다른 세상이 열릴것이다

삭막한 잿빛도시의 지붕이 다양하게 채색되어가고 있다. 학교폭력, 자살, 시위 등 일탈의 공간 혹은 쓰지 않는 물건들을 처박아두는 버려진 공간으로 여겨지던 옥상, 그곳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또 다른 문화를 만날 수 있는 이색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글 • 김미희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정식 (자유사진가)

일상에서 만나는 옥상

공공건물옥상, 공공의 쉼터로

회색빛 도시가 숨을 쉬기 시작했다. 콘크리트 옥상이 흙으로 덮이고 작은 나무들과 야생화들이 자라고 마른 시멘트 공간에서 쫓겨난 작은 생명체들이 보금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인천시청 민원동 옥상**은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는다면 그냥 지상공원으로 믿을 정도로 옥상정원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 334평의 옥상엔 소나무, 눈향나무 등 1천480여주의 수목과 하늘매발톱 등 25종의 야생화가 자란다. 꽃나무들이 계절을 달리하며 옷을 갈아입고 석조 공예품에는 빗물이 고여 자연스레 작은 연못이 만들어져 연꽃이 자란다. 어디서 찾아들었는지 소금쟁이 형제들이 여유롭게 헤엄친다. 덩굴장미로 꾸민 아치는 모델을 돋보이게 하는 촬영 포인트다. 또 지압로와 데크가 설치돼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울리는 친환경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민원을 위해 시청을 찾은 시민이면 누구에게나 허락된 이 공간은 공공의 쉼터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구월동 로데오 거리에 위치한 **한국토지공사 인천본부** 건물 4층에는 다양한 꽃나무와 벤치로 꾸며진 '소공원'이 있다. 파고라가 설치돼 그늘을 만들어주고 눈, 비 등을 막아주어 사철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 옥상도 쉼터로 꾸며져 있는데 멀리 보이는 문학경기장, 종합문화예술회관 등의 야경이 볼 만하다. 이 건물에는 토지공사를 비롯해 인천문화재단과 농협 등이 들어서 있다.

1 · 2 인천시청 민원동 옥상 3 한국토지공사 인천본부 4층 '소공원'
4 김진준 씨 집 옥상

나만의 옥상 가꾸기

김진준(만수3동 통장, 61세)씨 집 옥상에 들어서면 라일락 향기가 진동을 한다. 지역 재개발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버려진 항아리를 이용해 김씨는 4층 옥상에 아기자기하게 화단을 꾸몄다. 항아리를 보면 고향느낌이 들고 꽃을 워낙 좋아해서 한개 두개 모아온 게 이렇게 정원이 됐단다. 진달래, 개나리, 벚꽃나무, 능소화, 소사나무, 귤나무 등 30여 종의 꽃나무가 100그루 이상 자라고 있다. 꽃이 만발하면 주민들이 언제든 사진을 찍을 수 있게 옥상문을 활짝 열어놓는다. 2평 남짓한 정자도 마련돼 있어 주민들의 간담회가 열리거나 이웃들이 도란도란 이야기 꽃을 피우기도 한다. 이곳에 오면 만월산과 시선이 이어져 마치 숲이 무성한 산꼭대기 정자에 앉아있는 느낌이다. 겨울에는 눈꽃이 장관을 이룬다며 설경을 구경하고 싶다면 꼭 놀러오라고 귀띔한다.

옥상정원 꾸미기의 바람은 개인 주택뿐 아니라 아파트에서도 불고 있다. 부평의 **'성일파크뷰'**에도 옥상정원이 꾸며져 있고 신흥주거지로 떠오르는 남동구 서창동 일대의 신축 아파트에도 옥상정원이 설치될 계획이다. 삭막한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아파트가 아니라 사람냄새, 자연냄새 나는 아파트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5

6

7

일터 속 옹달샘

공장지붕에서 으레 연기가 나는 게 보통 아닌가? 그런데 이 공장건물에서는 굴뚝을 찾아 볼 수 없고 계절마다 초록지붕, 분홍지붕 등 그 색이 달라진다. 부평 갈산동에 위치한 아파트형 공장인 **우림 라이온스밸리** 옥상은 직장인들이 도심 속에서 지친 몸을 자연 속에 담그고 긴장을 풀 수 있는 공간이다. 8층, 10층, 13층의 세 개동의 옥상에서 보는 세상은 눈높이가 달라서인지 제각각 다른 느낌이다. 잘 정돈된 정원과 벤치, 골프 퍼팅장 등이 설치돼 있다. 내려다보이는 대형 분수광장은 외국의 신도시에 와 있는 느낌을 연출한다. 연면적 4만평에 200평 규모의 옥상정원이 각 동에 꾸며져 있으며 건물 구석구석에는 중정가든, 벽천, 소규모 공연무대 등이 설치돼 공장이라기보다는 고급 오피스텔에 와 있는 느낌이다.

한편 구월동 롯데백화점 옆 **이토타워** 옥상정원은 건축계에서도 알아줄 만큼 잘 꾸며져 있다. 15층 건물의 6층에 꾸며진 정원에는 대나무, 흐르는 연못, 분수대 등이 설치돼 있으며 건물 가운데에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뚫려 있다. 이 건물에 들어선 각종 금융기관과 음식점 직원들의 쉼터로 이용되고 있으며 은은한 조명으로 야경이 제법 볼만 하다.

자연과 호흡하는 배움터

8

2002년에 생긴 계양구의 **한솔유치원**(546-7815)은 어린이들에게 옥상의 작은 텃밭을 나누어 주어 생명이 창조되는 과정을 관찰하도록 했다. 120여명의 유치원생들이 하루에 한번씩 옥상에 올라와 식물들에게 물을 주는 등 자연학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텃밭은 작지만 딸기, 상추, 치커리, 방울토마토 등을 키우며 자연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배우고 있다.

인하대 하이테크센터 7층에 초록으로 꾸며진 옥상정원은 학업으로 지친 학생들에게 눈의 피로도 풀어주고 커피 한잔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다. 별이 쏟아지는 밤이면 젊은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도 이용되고 있다.

5 우림 라이온스밸리 **6** 이토타워 **7** 인하대 하이테크센터 **8** 한솔유치원

앗, 옥상정원 이런 효과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파괴된 생태계의 기능을 복원해주고 도시화로 인한 열섬현상을 줄여 기후조절에도 도움을 주며 대기오염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시민들의 잦은 이용으로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고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며 건물내구성이 좋아진다. 또 사회적인 효과로 도시경관이 아름다워지고 시민들에게 쉴 공간을 제공하며 환경교육의 장으로 이용된다.

한편 한국녹색문화재단에서는 지난해부터 옥상녹화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소규모 생물서식 공간인 비오톱을 조성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매년 3월에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에 대해 1억 5000만원 안팎으로 지원한다. 단순한 옥상녹화는 제외되며 다양한 생물종이 공동으로 서식하도록 조성하는 사업에 해당된다. (**문의** _ 02-2285-2035, www.forestfd.or.kr)

개인이 옥상정원을 꾸미기 위해서는 배수와 무게하중 등 건물의 안전진단부터 받아야한다. 옥상에는 해마다 따로 심지 않아도 되고 물도 자주 줄 필요가 없는 야생화초류를 심는 것이 좋다.

문화가 숨쉬는 옥상

맛이 있는 옥상

중구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카페 캐슬**의 옥상에는 작은 식물들이 심어져 있어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바닥에는 파릇파릇한 천연잔디가 깔려 있어 싱그러움을 만끽하며 차를 마실 수 있다. 이곳은 단체 모임 장소로 이용돼 가든파티가 열리기도 한다. 작은 분수와 파라솔 그리고 인천항의 낙조는 누구든 화폭 속 주인공으로 만들어준다. 좋은 대추로 직접 다려 만든 대추차가 사철 인기메뉴다 (773-2116).

즐거운 놀이동산 하늘공원

건물옥상 중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곳이 바로 백화점 옥상이다. 상품들을 쌓아두던 창고에서 놀이공간으로 새롭게 변신했다. **롯데백화점(인천점, 부평점)** 하늘공원에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벤치, 조각상, 화단, 휴식공간 등이 설치돼 있으며 어린이날과 여름방학 등에는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올해 여름에도 하늘공원에 어린이들을 위한 야외풀장이 마련될 계획이다. 그밖에도 구월동 인천CGV가 있는 **see&see** 건물 옥상과 연수동 **연수프라자** 옥상정원도 잘 꾸며져 영화 관람, 쇼핑, 식사 등을 즐긴 후 쉬어 갈 수 있어 좋다.

9

10

11

영화와 만난 옥상

12

대안적 미술활동 공간인 스페이스 빔은 올해로 **옥상영화제** 그 세 번째 이야기를 풀어낸다. 이번 테마는 '슈퍼스타'. 대중의 욕망과 자본의 시스템이 만들어낸 상업적 스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역설적 의미로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마이너리티, 비주류, 언더그라운드 등의 '휴먼스타'가 진정한 '슈퍼스타'이다. 독일 월드컵이 한창인 6월 15일~17일(19:00~01:00)동안 스페이스 빔 갤러리 3층 옥상에서 열린다. 천국의 아이들, 내일의 죠, 파워 오브 원 등이 상영되며 단편영화로는 꾸러기 스튜디오, 인하대 연극영화과의 단편영화 등이 상영된다. 여름의 길목에서 상큼한 바람을 맞으며 옥상영화제를 즐겨보자. (422-8630, http://spacebeam.net)

누구든 옥상에 관한 한 두 가지 추억은 있겠지만 특히 학교의 옥상은 일탈을 꿈꾸는 학생들의 특별한 공간이다. 고등학교 옥상을 배경으로 한 **영화 '방과후 옥상'**은 일명 학교짱을 건드린 소년이 방과후 옥상으로 불려가 벌어지는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지난 3월에 개봉한 '방과후 옥상'은 봉태규가 주연을 맡았고 그 특유의 코믹하고 황당한 캐릭터로 재미를 자아낸다.

9 롯데백화점 **10** 인천 CGV 옥상 **11** 카페 캐슬 **12** 옥상영화제

그들이 나서면 미션은 Possible

거리 곳곳에 현수막이 걸리고 버스와 지하철 광고란은 '2014 아시안게임은 인천에서' 라는 문구로 꽉꽉 채워지고 있다. 벌써 유치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유치분위기는 최고점에 와 있다. 하지만 화려한 유치홍보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을 흘리며 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글 • 김미희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정식 (자유사진가)

24시간 발로 뛰어도 부족한 유치전

2005년 12월 20일 공식 출범한 아시안게임 유치위원회(위원장 신용석)는 올해 1월 송도 갯벌타워 14층에 새롭게 둥지를 틀었다. 시 문화관광체육국 산하로 있던 아시안게임 유치단에서 유치위원회로 조직을 확대하고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며 인력을 재배치했다. 또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위해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유치위원회는 박남규 본부장, 길영선 유치지원 담당관 등 집행위원들과 KOC(대한올림픽위원회) 전문위원, 언론사 출신의 홍보전문가를 영입했다. 실 · 국급 형태로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유치 활동에서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국내외 유치활동을 위해 각계 각층의 유명인사와 국제대회 유치전문가로 새롭게 판을 짠 것이다. 그 때문인지 다른 사무실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사무실을 들어서는 순간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없는 활기찬 에너지와 파워가 느껴진다. 직원들은 오전 회의시간에나 동료들의 얼굴을 잠깐 볼 수 있을 뿐 각각의 분야에서 직접 발로 뛰며 유치준비로 숨가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하루가 25시간 쯤 된다면 차 한잔 마시며 수다라도 떨 수 있는 사치를 부릴 수 있을까? 당분간은 그런 여유가 생길 리 만무하다. 왜냐면 아시안게임 유치전은 이미 본게임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1:1 국가별 홍보전략으로 승부한다

유치위원회는 그동안 국내와 국외로 나눠 유치활동을 펼쳐왔다. 우리시를 중심으로 한 국내홍보로 현수막 설치와 대중교통 광고를 비롯해 차량스티커부착, 스포츠 행사를 통한 홍보, 각급 학교장을 대상으로 한 유치설명회 등을 펼쳤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각종 단체와 시민들이 직접 유치활동의 주체로 나서기도 했다. 통 · 이장 유치결의대회, SK와이번스 팬 사인회, 여성단체협의회의 유치 홍보 등으로 유치 붐을 조성해 그 열기를 한껏 오르게 했다.

한편 국외 활동으로는 지난해 제24차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총회, 제4회 동아시아대회, 제1회 실내아시아대회, 제23회 동남아시아대회, 제3회 서아시아대회 등 아시아의 국제 스포츠 행사에 홍보단을 파견해 국가별 유치홍보를 펼쳤다. 또 지난 3월과 4월에는 쿠웨이트에서 열린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 집행위원회의와 서울에서 열린 ANOC(아시아올림픽 위원회)총회에서 각국 위원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유치활동을 펼쳤으며 유치도시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위원회는 유치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해외 각국 정보 수집과 국가별 유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경쟁 도시인 인도 뉴델리의 유치활동 동향을 분석해 그에 맞는 홍보전략을 세우고 있다. 뉴델리시는 인도출신의 OCA 사무총장인 씽이 직접 나서 유치활동을 펼치는 등 인맥을 통한 홍보 전략을 펴고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는 정 · 관계, 체육계 등 NOC(국가올림픽위원회)위원과 친분 있는 인사정보를 수집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유치위원회는 이렇게 다양한 유치전을 펼치며 바쁘게 뛰어왔지만 유치가 결정되는 오는 12월 3일 카타르 도하 아시안게임 개막까지 잠시도 숨고를 틈이 없다고 한다. 이렇게 든든한 유치위원회와 함께 시민 한명 한명이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기에 아시안게임 유치 가능성을 높여주고 2014년 아시안게임이 우리앞에 성큼 다가온 듯하다.

아시안게임 유치에 동참하고 싶으시다고요 ?

방법 하나. 어차피 들어야 한다면 '2014년 인천아시아드 예금' 에 가입한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유치 후원금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시와 협약을 맺은 농협은 〈농협 2014 인천 아시아드 예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농협은 이 저축 상품을 개인 및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저축 가입금액의 일정비율(예금판매액-평균잔액의 0.1%)을 적립해 최고 10억원을 유치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가입자의 부담 없이 예금가입만으로 아시안게임 유치에 동참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인천은 물론 전국 900여개 농협중앙회 지점을 통해 10월 말까지 판매된다. (**문의** _ 1588-2100, www.nonghyup.com)

방법 두울. 사이버 홍보는 내가 맡을게!

유치위원회는 시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2014년 아시안게임을 인천에서 유치하기 위해 '사이버 서포터즈' 를 모집한다. 서포터즈가 되면 인터넷상에서 유치를 지지하는 홍보의 글을 올리거나 본인이 활동하는 인터넷 동호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른 회원들에게 유치홍보활동을 펼치게 된다. 회원이 되면 격월로 발행되는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위원회 소식지도 받아볼 수 있다

- **모집기간** : 연중 모집
- **자격조건** : 제한 없음(단체 명의 가입도 가능, 재외교포, 외국인 포함)
- **특전** : 회원 가입시 T셔츠 및 각종 기념품과 홍보물 증정 예정
- **신청방법** :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유치위원회 홈페이지(www.2014incheon.org)
- **문의** :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유치위원회 (440-2014)

선학어린이공원

운동? 체험? 감상?

골라 가는 재미가 있다

인천이 푸르고 쾌적한 도시로 변하고 있다. 산을 품고 있는 문학공원, 월미공원, 인천대공원 같은 큰 규모의 도시자연공원을 비롯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그리고 체육공원까지…. 도심 한 가운데 자리 잡은 중앙공원과 동네마다 하나 둘 생겨나는 공원들은 260만 인천시민의 삶에 여유와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공간이 되고 있다. 이렇게 공원이 늘어나다보니 집밖으로 나서면 쉽게 공원을 만날 수 있지만 누구와, 무엇 때문에 공원을 찾느냐에 따라서 공원도 골라 갈 수 있게 됐다.

글 • 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정식 (자유사진가)

#Theme 1 '국제우정' 한자리에
자매도시 공원

중앙공원

남구 관교동과 남동구 간석1동 사이 2.5㎞를 가로지르는 중앙공원은 도심에 녹지축을 형성해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4지구에는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세계 여러 도시들의 상징조형물이 자리를 잡고 있어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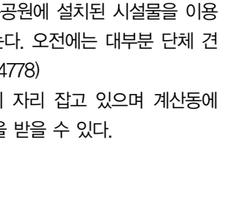
자매도시 조형물중 터줏대감격은 일본 기타큐슈시에서 보내온 '바다를 건너는 선물'. 지난 2003년 10월 두 도시의 자매결연 체결 15주년을 기념해 설치된 것이다. 바다로 연결된 두 도시와 사람들을 상징하는 이 기념물은 일본 작가 '후지나미 코미'의 작품으로 인천과 기타큐슈시의 교류증진과 발전에 대한 염원을 찬란한 빛의 선물에 담아 표현한 작품이다.

'바다를 건너는 선물'과 산책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우정의 솥'은 우리시와 인연이 각별한 중국 톈진시의 조형물이고 '중국결'은 중국 대련시의 상징조형물이다.

이어 베트남 하이퐁시 조형물은 지난해 10월에 설치됐고 최근에는 중앙공원에 리듬(Rhythm)이 생겼다. 중국 칭다오시와의 우호결연 10주년을 맞아 범선의 도시 칭다오의 심벌인 요트와 피아노 건반을 형상화한 것이다.

#Theme 2 몸짱 프로젝트 완성
체육공원

서운체육공원



연수체육공원

계양구 서운동에 자리 잡은 '서운체육공원'은 지난 4월 문을 열었다. 공원의 사이클 연습장에서는 경륜 선수들이 벨로드롬을 질주하며 기록을 측정하고 있는 모습이다. 인라인트랙에서는 주부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바퀴를 굴리고 있는가 하면 공원 한 쪽에서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 헬스기구에 몸을 맡기고 있는 사람 등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공원을 즐기고 있어 공원이라기보다는 종합운동장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남구 문학동에 사는 이선진 할아버지는 아흔 셋이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정정하시다. 이 옹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활시위를 당기기위해 국궁 연습장인 연수정(延壽亭)을 찾는다. 연수정에서는 열 대여섯 명의 어르신들이 곧 있을 대회를 앞두고 활시위를 당기며 훈련에 여념이 없다.

연수정이 둥지를 틀고 있는 연수체육공원에는 궁도장을 비롯해 풋살경기장, 3면의 배드민턴장, 농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등 여러 운동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밖에도 우리시에는 작전체육공원, 가좌체육공원 등이 조성돼 있다.

#Theme 3 뛰뛰 빵빵~
교통공원

남구 관교동 중앙공원 8지구에 있는 중앙어린이교통공원은 주의력이 부족해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이 높은 어린이들에게 교통질서를 가르치기 위해 지난 1993년 건립됐다. 이곳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 190개가 넘는 교통표지판이 설치돼 있어 어린이들이 실제로 신호등에 따라 길을 건너고 안전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다. 또 육교와 고가도로, 터널을 실제보다 작은 형태로 만들어 어린이들이 다양한 상황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 교육의 장이다.

교통공원에서는 교통사고 실태와 교통법규 준수 필요성에 대해 알려주는 비디오 영상물을 관람한 후 교통공원에 설치된 시설물을 이용해 이론교육을 '복습'하는 실습시간을 갖는다. 오전에는 대부분 단체 견학이므로 개별 견학은 오후에 전화로 예약해야 한다.(880-4778)

한편 인천의료원 옆에도 동구어린이교통공원(578-4067)이 자리 잡고 있으며 계산동에도 계양구어린이교통교육원(450-5928)이 있어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Theme 4 공원으로 옮겨온 갤러리
조각공원

모도와 이일호

인천대공원

단순한 휴식 보다는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기쁨을 주는 공원도 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달려 영종도에 닿으면 삼목선착장에서 장봉도를 거쳐 신 · 시 · 모도로 가는 배를 탈 수 있다. 신 · 시 · 모도는 연륙교로 이어져 있어 한 몸이나 다름없다. 시도 노르메기 선착장에서 모도로 건너가는 연륙교 왼편부터 조각 작품의 전시가 시작된다. 구불구불한 섬길을 따라 오르면 '모도와 이일호'라는 조각공원에 닿는다. 조각공원 여기저기에는 기타 치는 여인, 소라껍질 속의 아이들, 어깨동무한 사람들… 등 조각가 이일호 씨의 개인 작품 20여점이 무질서한 듯 편안히 자리를 잡고 있다.
인천대공원의 조각공원도 공원을 찾는 재미에 '덤'을 주는 곳이다. 대공원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호수를 지나면 4천800여 평에 이르는 조각공원에 닿는다. 이곳에는 스테인리스, 청동, 알루미늄 등을 이용한 중견 조각가들의 작품 스물다섯 점이 설치돼 있다. 조각공원 안에는 넓은 잔디밭이 펼쳐져 있어 작품을 감상하며 편안히 쉬기에 제격이다.

#Theme 5 공원, 이 정도는 돼야지
송도 중앙공원

'현재진행형'인 송도국제도시는 지금도 여기저기서 지하철이며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다. 쭉쭉 뻗어가며 들어서는 건물들 틈으로 시원스레 숨통을 틔워주는 곳이 있다. 송도 중앙공원이다.
친환경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송도국제도시는 쾌적한 도시 건설을 위해 전체 면적의 32%를 공원과 녹지로 조성해 생태도시로 건설된다. 친환경도시의 상징이 될 중앙공원의 근린1공원은 6만4천649평의 부지에 조성된다. 현재 4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드레곤힐, 정보의 바다, 국제교류마당, 워터파크 등이 들어서 첨단도시 송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곳에는 42만4천 그루의 각종 나무를 심어 푸른 공간으로 가꿔진다.
웰카운티아파트 인근 4만8천430만평에 조성되는 근린2공원은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담고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진다. 미추홀바다, 누각, 전통문화관, 전통정원 등이 설치되며 18만4천 그루의 나무가 심어질 계획이다.
내년 5월 송도중앙공원의 근린1 · 2공원이 완공될 즈음이면 녹음과 꽃이 우거지는 국제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Theme 6 산책코스로 그만
배수지공원

연수배수지공원

상수도사업본부의 배수지는 물을 흘려보내는 곳이라 높은 데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땅 밑에 물탱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면적이 넓고 녹지와 조경 또한 잘 정비돼 있다.
연수배수지공원으로 오르는 길은 구불구불한 산책로가 나있어 마치 등산하는 기분을 느끼게 한다. 연수구에서는 이곳을 자연학습 테마공원으로 지정해 어린이와 학생들이 생태를 관찰하고 자연을 배우는 공원으로 지정할 정도다.
공원에 들어서면 너른 잔디밭이 눈에 들어온다. 초등학교 운동장 보다도 넓은 잔디에서는 싱그러운 풀냄새가 폴폴 풍겨난다. 공원 안쪽으로는 벤치와 야외형 헬스기구, 그리고 커다란 홀라우프 등이 걸려있어 누구라도 간단한 운동을 즐길 수 있다.
이밖에도 송현배수지와 부평배수지, 연희 · 검단 · 석남 · 공항배후단지배수지 등에도 너른 잔디산책코스가 마련돼 있고 축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이 설치된 곳도 있다.

#Theme 7 조상님과 함께 휴식
묘지공원

묘지공원이라고 하면 왠지 황량한 무덤들과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연상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부평묘지공원은 좀 분위기가 다르다. 시립납골당인 추모의집과 화장장인 승화원이 지난 2003년 3월 문을 열면서 부평묘지공원은 매장보다는 화장을 위주로 하는 장묘문화를 선도해 가고 있다.
묘지가 많이 사라진 덕분에 공원을 찾으면 푸르른 숲과 잔디밭에서 어느 공원에 온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게다가 묘지공원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일부러 찾는 사람이 별로 없는 데다 추모의집 앞쪽에는 잔디밭과 등나무 벤치가 마련돼 있고 그 뒤로는 호수에서 한가로이 유영하는 오리떼도 만날 수 있어 호젓한 분위기에서 편하게 쉴 수 있다.

#Theme 8 생명의 소중함 배운다
해양생태공원

소래포구에 자리잡은 해양생태공원은 갯벌과 우리 생태계를 몸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공원에 들어서는 입구의 갯벌체험장에서는 보드라운 갯벌에 직접 들어가 뽀글뽀글 구멍을 만들며 올라오는 칠게, 농게를 잡아 볼 수 있다.
공원 안쪽에는 폐염전을 개조해서 만든 생태학습관이 자리잡고 있다. 생태학습관에는 염전과 소금을 생산하는 과정을 담은 사진, 소래의 역사사진, 생태공원의 모습 등이 전시돼 있어 체험에 앞선 학습에 효과적이다.
해양생태공원의 백미는 염전학습장. 지금도 실제로 소금이 생산되고 있는 이곳은 저수지에 모아놓은 바닷물이 어떻게 소금으로 재탄생하는지의 과정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 운이 좋으면 날씨 좋은 날 소금을 직접 긁어내는 체험을 할 수도 있고 물을 퍼올리는 데 쓰이는 수차를 돌려보는 기회도 가져볼 수 있다.

이색공원

도원동 70계단쉼터

구도심 지역인 도원동에는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특이한 쉼터가 하나 자리 잡고 있다. '70계단 쉼터'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그곳이다. 이 쉼터는 불과 1년전까지만 해도 매력 없는 시멘트계단에 불과했다. 야산이 깎인 언덕으로 아카시아 나무가 우거진 곳이었는데 비가 오면 흙이 떠내려 와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1985년 도로를 새로 정비해 언덕을 깎아 계단을 만들었다. 하지만 2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계단의 색이 바래 동네 분위기마저 가라앉게 됐다. 중구는 오래된 계단을 정비해 마을의 미관을 개선하면서 이곳을 다목적 쉼터로 조성했다. 마침내 지난 2005년 8월, 시멘트 계단은 깔끔한 화강석 계단으로 바뀌었고 500여평 크기의 휴식공간도 만들어졌다. 쉼터 곳곳에는 소나무, 자작나무 등 다양한 나무를 심었고 쉼터 한 쪽에는 동물모양, 버섯 모양의 놀이시설을 마련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게 했다.
흉물스럽던 계단은 이제 동네 자랑거리가 됐고 하루 평균 200명이 찾는 등 주민 모두의 사랑을 받는 휴식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사진가 눈을 통해 세상의 또 다른 모습 본다

사진그룹 IMAGO

사진의 이미지는 말과 글이 줄 수 없는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우리는 한 장의 사진이 주는 무게에 깊은 떨림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사진은 변해버린 것과 아주 사라져버린 것들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지난 역사를 생생하게 기억하게 한다.

글 • 신은주 (인화여고 국어교사) | 사진 • 김정식 (자유사진가)

사진그룹 이마고(IMAGO)를 취재하러 종합문화예술회관 근처에 있는 태양스튜디오를 찾았다. 이곳은 사진가 유재형 씨가 운영하는 스튜디오로 이마고의 '아지트' 이자 인천에서 사진 좀 한다는 사람들의 사랑방 같은 곳이다.

이마고는 'image' 의 어원이 되는 라틴어이다. 세상 모든 것이 고유의 형상을 가지지만 사진가의 눈을 통해 세상은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을 담고자 하는 의미에서 지은 이름이다. 2002년 12월, 인천가톨릭대 사회교육원에서 사진공부를 한 사람들끼리 뭉친 사진그룹이다. 유재형 씨는 당시 그들에게 사진을 강의한 교육원 교수였다. 스승이 강단에서 다하지 못한 강의를 동아리 형식으로 다시 제자들을 불러 모아 현장에서 함께 뛰며 도제형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현재 16명이 활동을 하며 2004년과 2005년에 두 번의 전시를 가진 이마고는 다른 사진 그룹과는 작업의 방향에서 확실한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지는 '아픈' 곳을 찾아 앵글에 담는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인천의 몇 개 남지 않은 배 터 중에서 유일하게 생활터전을 갖고 있는 화수부두.

화수부두는 유재형 씨가 사회교육원에서 사진 강좌를 하기 전부터 20년간 드나들면서 작업을 해 오던 곳이다. 그에게 이곳은 공장의 숲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아파트, 부두가 있어서 삶의 이야기가 많고 인천에서는 의미 있는 지역이다. 사회교육원 수강생들도 이 화수부두에 마음이 끌려서 작업을 하다가 이마고에 들어와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바다로 물이 가득 들어오는 음력 7월 백중사리 때면 화수부두의 물이 넘친다. 이 때를 전시기간으로 정하고 첫번째 사진전은 각자가 보고 느낀 화수부두의 이미지를 표현한 화수부두 설치전으로 열었다. 고철부두의 이전으로 부둣가는 더 좁아지고 사람들은 철가루 속에서 살게 되었다. 잊혀져가는 마을을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는 것은 사진뿐이다. 햇볕에 널어놓은 빨간 고추, 먼 바다로 만선의 꿈을 안고 달려가는 뱃고동 울리는 꽃게 배는 아직도 남아 있는 희망의 흔적이다. 그 이미지를 담아 가겟집 유리창틀, 전봇대, 그물 등에 사진을 걸었다.

제 2회는 들물 – 화수부두의 또 다른 이야기를 담았다. 인물 사진을 위주로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담기 위해 회원 한 명이 2가구씩 맡아서 매주 한 번씩 방문하여 주민들과 함께 공동작업을 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다 오래 되었다. 카메라에 잡힌 집안의 골목 담 벼락에 걸려 있는 사진도, 조명을 받고 있는 부두도 우리를 슬프게 한다. 노인만 남아서 마음이 아프고 작은 정원 앞에 있는 할머니의 흰머리와 자라나는 화초도 마음을 일렁이게 한다. 손자의 선물인 메달을 목에 걸고 환하게 웃는 할머니의 빈 치아 사이로 웃음이 새어 나가는 것도 슬프다. 천장에 매달아 놓은 낡은 선풍기 옆에 먼지를 쓴 채 흰 실타래에 묶인 북어가, 복조리가 희망을 품고 있는 것도 마음이 아프다. 기억 속에서 잊혀져가는 것은 사람을 아프게 한다. 회원들은 그 연민 속에서도 다가오는 주민들의 따스함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면서 전시작품을 주민에게 모두 선물로 남기고 왔다.

이마고는 지금 그동안의 작업 현장을 벗어나 빈 집이나 공터를 활용한 옴니버스 형식의 또 다른 '작품' 을 구상하고 있다.

막上막下
이달의 공연

아카펠라뮤지컬 거울공주평강이야기

독창적인 형식과 새로운 장르가 결합된 아카펠라뮤지컬 〈거울공주평강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평강공주이야기를 보다 새롭게 각색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게 구성했다. 배우의 목소리와 신체 이외에 특별한 무대장치, 조명, 소품 등 그리고 어떠한 악기나 음향기기도 사용하지 않고 자연스러움 자체만으로 준비된 전혀 새로운 형식의 뮤지컬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출신들이 주축이 된 '간다(簡多)'는 젊고 크리에이티브한 감각과 실험정신으로 현재 공연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젊은 극단이다.

일시 _ 6월 24일(토), 25(일) 오후 3시, 7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_ 20,000원
(6월 8일까지 월드컵 16강 기원 조기예매 16,000원)
문의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020~2 / http://art.incheon.go.kr)

타악콘서트 딱따구리유아음악회

타악 앙상블의 형식을 차용한 콘서트로 생후 12개월부터 미취학 아동들이 즐길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구성한 타악음악회이다. 유아들이 거부감 없이 타악기의 세계에 젖어들면서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동화책을 보는 듯한 무대와 자극적이지 않은 조명, 복잡하지 않은 내용 구성으로 유아들이 호기심을 갖도록 기획한 공연이다.

일시 _ 6월 3일(토), 4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_ 전석 20,000원 / 예매할인 16,000원
문의 _ 두부기획(02-2654-6854)

진보라와 함께하는 재즈콘서트

서울재즈아카데미 재즈피아노과를 졸업한 후 재즈 피아니스트의 길을 걷기 시작한 진보라는 재즈를 바탕으로 전세계의 다양한 음악, 특히 제3세계의 전통음악들을 통합하여 세계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음악을 연주한다. 그녀는 새로운 흐름의 재즈를 만들기 위하여 국악과 다양한 장르의 재즈를 접목하는 작업과 함께 캐나다 재즈밴드 Janniffer Ryan & Cash Cow, Ronn Branton Trio, 티벳 명상음악의 달인 나왕 케촉, 인도 라가 명인 밀린드 다테 등과 협연하였다.

일시 _ 6월 2일(금) 오후 7시
장소 _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싸리재홀
티켓 _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 A석 10,000원
문의 _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부
(760-3453~6 /www.iecs.go.kr)

김현숙 현대무용단 초청기획 야외공연 '놀이'

'놀이 한마당'(김현숙현대무용단)과 '놀이 두마당'(김기인현대무용단) 에서는 각기 움직임의 특성이 다른 현대무용, 재즈, 힙합 등 여러 춤의 장르가 한 무대에 어우러지면서 무용에 대한 전문적 지식 없이도 무용공연을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6개의 작품이 준비되었다. 어린 시절 즐겨하던 놀이의 형태들이 현대무용의 틀을 갖추고 새로운 움직임의 형태로 구성된 무대이다. '놀이'라는 주제가 던져주듯 가벼운 마음으로 주말의 한가로움을 유쾌하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의 오프스테이지이다.

일시 _ 6월 4일(일) 오후 7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티켓** _ 초대
문의 _ 김현숙현대무용단 (760-8862, 017-342-1161)

로르 파브르칸 초청 피아노콘서트

한 · 불 수교 120주년 기념행사로 파리 국립고등음악원과 2001년 국제 프로 피아노콩쿠르에서 1위 입상 및 유수한 세계 음악 축제에 초청돼 열광적인 호응을 얻었던 로르 파브르칸(Laure Favre-Kahn)이 지난해 부산 공연에 이어 올해 다시 한국 팬들을 찾는다. 이번 무대에서는 쇼팽과 라흐마니노프 등의 곡을 연주한다.

일시 _ 6월 1일(목) 오후 7시
장소 _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싸리재홀(대공연장)
티켓 _ 일반 10,000원 / 학생 6,000원
인터넷 예매 www.coreefrance.com
문의 _ 인천알리앙스프랑세즈 (인천프랑스문화원)
(860-8034 / www.afincheon.co.kr)

6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 **시립교향악단 〈11시의 콘서트〉** 오전 11시 1만원, 7천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420-2781 **인천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오후 7시30분 초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인천음악문화원(429-0248)	2 **금요예술무대** **〈째즈와 국악의 만남〉**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야외공연장 무료 / 420-2717	3 **딱따구리유아음악회**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2만원 / 두부기획(02-2653-6854) **악극〈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오후 4시, 7시 / 서구문화회관 2만원, 1만5천원 / 583-2362 **시립무용단 토요상설무대** 오후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야외공연장 무료 / 420-2788	4 **딱따구리유아음악회**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2만원 / 두부기획(02-2653-6854) **인천콘체르탄테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3만원, 2만원, 1만원, 5천원 인천음악문화원(429-0248) **해설과 함께하는 김현숙 현대무용단 초청야외공연 〈놀이〉** 오후 7시 / 인천종합문화회관야외공연장 / 760-8862
5	6 **인천클라리넷합주단** 제6회 정기연주회 오후5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초대 467-8477	7 **인천플루트콰이어** **〈봄이 오는 소리〉** 오후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5천원 음악교육사(888-0808)	8 **인천색소폰앙상블 제8회정기연주회** 오후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7천원, 5천원 422-2426 **2006 인천이 낳은 무용가들** 오후 5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야외공연장 무료 02-568-8685	9 **시립무용단창단25주년기념 갈라공연 및 제58회 정기공연 〈미인도〉**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1만원, 5천원 / 420-2788 **금요예술무대** **이일하의 음악여행**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야외공연장 무료 / 420-2717	10 **시립무용단창단25주년기념 갈라공연 및 제58회 정기공연 〈미인도〉** 오후 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1만원, 5천원 / 420-2788 **제15회 인천무용제** 오후5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 무료 한국무용협회인천시지회 865-5474 **황해도 대동굿** 오전 11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야외공연장 황해도굿 한뜻계 보존회 423-5249	11 **제15회 인천무용제** 오후5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무료 한국무용협회인천시지회 865-5474
12	13 **제14회 인천YMCA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초대 / 431-8161 **시립교향악단 실내악연주회** 오후 5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5천원 / 420-2781 **17회 어린이연극경연대회** 평일 오후5시,6시 주말 오후4시,5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싸리재홀 무료 / 429-3866	14 **17회 어린이연극경연대회** 오후 5시, 6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싸리재홀 무료 / 429-3866 **국립인천대학교 확정기념** **인천대학교 후원의 밤** 오후 6시30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 770-8788 **전통 무속 제2회 제금춤 발표회** 오후 7시30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 5천원, 2천원 전통무속춤연구보존회(876-0879)	15 **17회 어린이연극경연대회** 오후 5시, 6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싸리재홀 무료 / 429-3866 **성산소년소녀합창단** **제14회 정기연주회** 오후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1만, 5천 / 514-4542	16 **17회 어린이연극경연대회** 오후5시, 6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싸리재홀 무료 / 429-3866 **금요예술무대** 환상의 오리엔탈 댄싱 페스티발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야외공연장 무료 / 420-2717	17 **17회 어린이연극경연대회** 오후 4시, 5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싸리재홀 무료 / 429-3866 **시립무용단 토요상설무대** 오후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야외공연장 무료 420-2788	18 **17회 어린이연극경연대회** 오후 4시 ,5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싸리재홀 무료 / 429-3866
19 	20 **가족뮤지컬 〈말괄량이 소녀〉** 오후 4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싸리재홀 1만2천원, 8천원 꼬마세상 (572-4281)	21 **가족뮤지컬 〈말괄량이 소녀〉** 오전10시10분 11시20분, 오후4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싸리재홀 1만2천원, 8천원 꼬마세상 (572-4281) **인천&아츠 시민문화프로그램V** **〈베이스 갱〉 내한공연** 오후 7시30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 5만원, 3만원 예매 : 엔티켓(1588-2341)	22 **가족뮤지컬 〈말괄량이 소녀〉** 오전10시10분 11시20분,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싸리재홀 1만2천원, 8천원 꼬마세상 (572-4281) **인천예술고등학교 제9회** **정기연주회** 오후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무료 / 433-3142	23 **어린이 캣츠** 오후 4시,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3만, 2만5천, 2만, 1만5천원 아트씨티(080-050-3355) **금요예술무대** **퓨전국악 시아**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야외공연장 무료 / 420-2717	24 **아카펠라 뮤지컬** **〈거울공주 평강이야기〉** 오후 3시, 7시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 2만원 / 예매 : 엔티켓(1588-2341) **초등교사 락밴드 Roze 콘서트** 오후3시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싸리재홀 1만원, 5천원 / 882-1097 **제26회 인천춤길** 오후 8시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야외공연장 한국무용협회인천시지회 / 865-5474 **어린이 캣츠** 오후 2시, 4시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 3만, 2만5천, 2만, 1만5천원 아트씨티(080-050-3355)	25 **제26회 인천춤길** 오후 8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야외공연장 한국무용협회인천시지회 865-5474 **아카펠라 뮤지컬** **〈거울공주 평강이야기〉** 오후 3시,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2만원 / 예매 :엔티켓(1588-2341)
26	27 **성예방뮤지컬** **〈삐삐는 얼레리 꼴레리〉** 오후 3시30분, 5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1만2천원, 8천원, 4천원 꼬마세상(572-4281)	28 **성예방뮤지컬** **〈삐삐는 얼레리 꼴레리〉** 오전10시10분, 11시20분, 오후 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1만2천원, 8천원, 4천원 꼬마세상(572-4281) **시립무용단 제62회** **춤마당 · 흥마당**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420-2788	29 **성예방뮤지컬** **〈삐삐는 얼레리 꼴레리〉** 오전10시10분, 11시20분, 오후 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1만2천원, 8천원, 4천원 꼬마세상(572-4281) **관교클라리넷 클럽 정기연주회** 오후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무료 / 885-8083	30 **i-신포니에타 제3회 정기연주회 〈휴기〉** 오후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무료 / 834-1055 **제9회 청소년협주곡의 밤**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1만원, 7천원, 5천원 인천음악협회(876-8646) **금요예술무대 천상의 보이스 아카펠라**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야외공연장 무료 / 420-2717	7.1	2

※ 공연 및 전시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람전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세요.

The Base Gang 베이스 갱

일시 _ 6월 21일(수) 오후 7시30분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 5만원, S석 3만원
문의 _ 420-2020~2 (http://art.incheon.go.kr)

〈베이스 갱〉은 클래식 공부를 한 네 명의 더블베이스 주자들로 구성된 이태리 출신의 전천후 엔터테인먼트 퓨전밴드이다. 그들이 펼치는 음악은 딱히 규정지을 수는 없지만, 굳이 말한다면 크로스오버라 할 수 있다. 클래식 명곡은 물론, 오페라 아리아, 재즈에서 팝과 록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자신들만의 특유한 방식으로 편곡하여 때로는 장중하게, 때로는 코믹하게 연주한다. 특히 더블베이스를 전통적인 방식뿐만 아니라 몸통을 손바닥으로 비빈다든지 연주 사이사이에 함성을 지르는 등 개구쟁이 같은 무대 매너로 객석을 완전 폭소로 몰아넣기도 한다.

멤버는 정통 클래식 베이스를 공부한 안토니오 샨칼레포레, 안드레아 피기, 알베르토 보키니, 아메리고 베르나르디 등 네 명이다. 멤버들 역시 모두가 오케스트라의 단원들로서, 그들은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가 끝나면 베이스 주자들끼리 모여서 다른 악기 소리를 흉내내며 즐거운 시간을 갖곤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베이스 갱〉이라는 밴드를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더블베이스(콘트라바스)는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 등 다른 현악기에 비하여 수적으로 그리 많지 않지만, 최저음을 담당하고 오케스트라에서 힘과 무게를 주고 화성의 기초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악기이다. 지휘자 없는 오케스트라는 있어도 더블베이스 없는 오케스트라는 없을 것이다.

이달의 展

유성종 도예전 '옹기를 찾아서'

유성종은 질박하고 자연스러운 옹기에 매료되어 옹기를 연구하며 작업하는 작가다. 6월 22일(목)부터 28일(수)까지 신세계갤러리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수레질과 썰질을 이용한 항아리, 젓독, 장군, 연가, 병, 수반 등 다양한 옹기를 선보인다. 전시기간 중 워크숍을 통해 옹기의 제작방법을 선보이며 작가와의 대화를 통해 전통옹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옹기의 생활화를 모색해 본다.

박인우 '人間의 大地'

인천과 서울을 중심으로 개성적인 작품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온 서양화가 박인우(가천의과학대학교 교수)의 제11회 개인전 **'인간의 대지'**전이 6월27일(화)부터 7월7일(금)까지 서울 한전아트프라자 갤러리에서 열린다. 작가의 독특한 시각언어로 상징화 시킨 30점의 회화 작품들이 전시돼 관객들과의 즐겁고 진지한 소통을 꾀한다.

부채그림전 (430-1157)
6월1일~11일
신세계갤러리

환경과 미술의 만남전 (815-5922)
6월2일~8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 · 중앙 · 소전시실

인중 · 제고 미술전(010-2323-6877)
6월2일~8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미추홀전시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디자인 제안전(881-3688)
6월3일~11일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전시실

〈인천사랑〉미술대전(435-0882)
6월9일~15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전시실

제2회 인서회전(501-3491)
6월9일~15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중앙전시실

제6회 어진내예술회 회원전(545-7361)
6월9일~15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전시실

국민예술협회인천지회회원전(561-4190)
6월9일~15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미추홀전시실

제42회 인천광역시사진대전(864-4887)
6월16일~22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전시실

제10회 황해환경사진대전
(011-9887-4863)
6월16일~22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중앙전시실

제26회 인천공예품전시회(440-2875)
6월16일~22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전시실

제9회 인천관광기념품공모전입상작
(440-4054)
6월16일~22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전시실

하늘그림회전 〈착한그림〉(429-6860)
6월16일~22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미추홀전시실

유성종 도예전(430-1157)
6월22일~28일
신세계갤러리

제9회 황해미술제(423-0442)
6월23일~29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 · 중앙전시실

미객(429-6860)
6월23일~29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전시실

규방가사-오늘전(831-7038)
6월23일~29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미추홀전시실

제2회인천선예술동행전(772-9980)
6월30일~7월6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 · 중앙전시실

Brunch with Orchestra Concert

일시 _ 6월 1일(목) 오전 11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 1만원, S석 7천원
문의 _ 인천시립교향악단 (438-7772)

평일 오전 11시, 간단한 식사와 함께하는 수준 높은 음악회 '브런치 콘서트(Brunch Concert)'를 이제 인천에서도 만날 수 있다. 지역의 클래식 음악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온 인천시립교향악단은 관객들과의 만남을 자주 갖기 위해 '11시의 콘서트'를 기획했다. 저녁공연이 대부분인 교향악단 콘서트에 대한 생각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정통 클래식부터 대중가요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로 구성해 주부를 비롯해 자영업자 등 그동안 저녁 시간의 문화적 혜택을 누리기 힘들었던 이들에게 반가운 무대가 될 것이다.

공연 후에는 간단한 식사를 즐기며 당일 공연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음악애호가들에게 색다른 '문화적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 프로그램 〉

- 글린카 / 서곡「루슬란과 뤼드밀라」
- Kenny G / Going Home
- P.Collins / Against all odd (Saxophone / 이인권)

- 꽃밭에서
- 사랑했으므로
- Too much heaven (초청가수 / 조관우)

- 브람스 / 헝가리안 무곡 제1번
- 베토벤 / 피아노 협주곡 제5번「황제」내림마장조 작품.73 (Piano / 장은주)
- 드보르작 / 교향곡 제9번「신세계로부터」마단조 작품.95a

최영섭과 함께하는 영상음악감상

'그리운 금강산'의 작곡가 최영섭 선생의 해설과 함께 고전음악의 연주실황을 영상으로 감상하는 '정기영상음악감상회'는 음악애호가 뿐만 아니라 아직은 공연이 낯설은 잠재적 관객에게 음악감상의 체계적인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일시 _ 매월 두번째 화요일 오후 7시30분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
티켓 _ 무료
문의 _ 420-2020~2

반갑다 놀토야 ~ 난 회관에서 논다

올 들어 본격적인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고 아이들도 한 달에 두 번씩 쉬는 토요일이 생기면서 이 날을 활용하는 방법도 갖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노는 토요일을 어떻게 의미있게 보내야할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 우리시 청소년회관을 비롯해 각 구 청소년수련관 등에서는 놀토프로그램을 운영해 걱정거리를 해결해 준다.

글 • 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성환 (자유사진가)

청소년회관 가족이 함께해요

청명한 5월의 둘째 토요일. 남구 숭의동의 청소년회관 운동장에서는 한 떼의 청소년들이 농구를 즐기는 모습이다. 회관 현관에는 놀토문화체험교실 '요술풍선 만들기' 2층, '가족신문만들기' 1층을 알리는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우리시 청소년회관은 청소년들이 토요 휴업일을 가족과 함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초등학생과 가족을 대상으로 '2006 놀토 문화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요술풍선만들기 교실로 들어서자 넓은 교실 앞쪽에는 색색의 풍선과 펌프가 준비돼 있고 전문 강사의 설명이 한창이다. 교실 안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아이, 그 아이의 동생인 듯한 유치원 꼬마, 그리고 엄마까지 초롱초롱 눈망울을 빛내며 앉아 있다. 교실 안을 둘러보니 어린이 열 대여섯명과 엄마, 아빠 5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다. 풍선아트 전문 강사인 오경희 선생님의 손끝에서 길다란 풍선이 어느새 예쁜 꽃으로 변신하는 것을 본 아이들은 어서 해보고 싶은지 엉덩이를 들썩거리기도 한다.

드디어 풍선과 펌프가 나눠지고 아이들도 꽃을 만들기 시작한다. 빨간색 풍선 입구에 펌프를 대고 한 번, 두 번… 몇 차례 펌프질을 한 후 입구를 꽁꽁 묶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방울 접기를 하고 동그랗게 모으자 어느새 빨간 꽃 한 송이가 피어난다. 여기에 초록색 풍선으로 줄기를 세운 아이들은 자기가 만든 꽃을 매만지며 흡족해 하는 모습이다.

〈굿모닝인천〉을 보고 아빠와 같이 신청해서 왔다는 심다연(중앙초 2)양은 "아빠가 평소에 잘 안놀아 주시는데요, 오늘은 여기 같이 오니까 너무 좋아요"라며 신이 났다. 아빠 심강섭(연수구 연수동 · 34)씨 역시 "제가 토요일에 격주로 근무하기 때문에 아이와 노는 토요일이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바빠서 잘 놀아주지 못해 미안하던 차에 마침 쉬는 날이 맞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아이랑 어떻게 놀아줘야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아이도 즐거워 하니 좋네요"라며 흡족해 한다.

1층 강의실에서는 가족신문 만들기가 한창이다. 초등학교 3~4학년이 되면 학교에서 가족신문을 만들어 보라는 과제를 내주곤 하는데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부모님들 숙제가 돼 버리거나 아이가 대충 만들어 가는 게 일반적이다. 이런 고민을 가족들이 함께 해결 할 수 있도록 가족신문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유혜경 선생님은 가족신문 창간에서부터 취재방법, 기사작성, 신문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해 준다.

초등학교 3학년 딸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가한 곽미영 씨(동구 송현동 · 40)는 "아이 혼자 신문 만들기는 사실 좀 벅차거든요. 그렇다고 다른 집에서 만든 결과물만 가지고 우리집 신문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구요. 오늘처럼 신문 만드는 과정을 배우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 아이가 쉬는 토요일에 뭐할건지 고민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인천에 있는 청소년 관련 시설의 프로그램을 잘만 활용하면 할 게 무궁무진해요"라며 미소 짓는다.

청소년회관은 놀토프로그램을 단기성 과목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2시간 내에 교육효과가 드러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면서 평소에 접해 보기 힘든 것을 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야외 1일 캠프 등도 구상해 가족 나들이 개념으로 가족이 함께하는 노는 토요일을 만드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청소년회관의 놀토프로그램은 둘째, 넷째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다. 초등학생과 학부모는 누구든 무료(재료비 별도)로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 매월 1일부터 전화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887-5270~1)

청소년회관 놀토 프로그램

월	주	과 목 명
6월	둘째	천연비누 만들기, 동판
	넷째	압화공예, 천연염색, 한지공예, 짚풀공예
9월	둘째	스텐실, 점핑클레이
	넷째	다도교실(추석차례상차림), 천연염색, 택견
10월	둘째	종이공예, 비즈공예
	넷째	압화공예, 전통 탈 만들기
11월	둘째	청소로봇 만들기, 레고닥타
	넷째	전통 연 만들기, 어린이 난타

동구청소년수련관 학교 밖으로 나가자

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는 일일문화체험 '학교 밖을 나와 세상에 뛰어들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 5일 수업제 시행에 따라 청소년들이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는 학교 밖으로 나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그렇다고 며칠씩 집을 비우고 체험을 떠날 수는 없는 노릇. 그래서 하루 코스로 다녀올 수 있는 여러 장소들을 친구들과 함께 둘러보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첫 번째 탈출은 지난 2월 마지막 토요일에 가졌다. 서울의 '별난물건박물관'에서 그야말로 별나고 희한한 물건을 둘러보며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것이다. 두 번째 탈출은 서울의 짚풀생활박물관에서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가스과학관, 허준박물관에서 각각 가졌다.

앞으로는 고양시에 있는 테마동물원쥬쥬, 청와대, 애벌레생태학교 등으로 '탈출'을 시도해 여가 시간을 활용하고 즐거운 체험을 할 수 있다.

'학교 밖을 나와 세상에 뛰어들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가비는 그때그때 다르다. 좀 번거롭더라도 수련관을 방문해 접수해야 하고 매월 10일부터 선착순 마감이기 때문에 원하는 체험이 있다면 서두르는 편이 좋다.

이와는 별도로 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는 주 5일 수업에 대비한 또 다른 프로그램이 열린다.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는 '나는야 챔피언'이라는 이름으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건전한 경쟁심을 키울 수 있는 대회가 열린다. 또한 요즘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마술반이 운영되는가 하면 셋째 주 토요일에 열리는 'Have a Party Time'을 통해 일상을 벗어나 재미있고 의미있는 청소년 문화를 경험해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는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한국에 유학을 와 있는 외국인 대학생과의 교류를 통해 넓은 세계관을 형성하고 우리 전통문화를 함께 이해 할 수 있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이다.

동구청소년수련관의 주5일 수업대비 토요프로그램은 전화로 상담한 후 접수하면 된다. (777-7942)

주5일수업대비 토요프로그램

행 사 명	일 정	사 업 내 용
나는야, 챔피언	2월~11월 둘째주 토요일	탁구대회, 카트라이더, 짚풀공예, 청소년가요제, 솟대만들기, 연만들기 · 날리기, 제기만들기, 타임캡슐만들기
Have a Party Time!	3, 5, 8, 11월 셋째주 토요일	테마별 파티 진행, 비빔밥파티, Pre-성년의날 파티, 피서파티, 청소년들의 밤 파티
어울마당	6월 10일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주먹펴기' 마라톤대회
마술반	4, 5, 6, 7, 10, 11월 둘째 토요일	마술의 역사 및 유래, 강의 실습식 마술프로그램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4월~11월 넷째 토요일	전통문화체험, 외국문화 강의, 인천의 축제체험
Mini NGO반	2월~12월 넷째 토요일	외국인과 함께하는 지역사회환경 개선활동

연수구청소년수련관
체험하며 즐기자

연수구청소년수련관에서도 쉬는 토요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초 · 중 · 고등학생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연수구 수련관의 놀토 프로그램의 특징은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다. 파주 샛골마을이나 김포 · 강화의 농촌체험, 애니메이션센터 등 당일 코스로 다녀올 수 있는 곳에서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는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5월에는 '네모 속 세상의 행복 찾기'라는 제목으로 초등학생들이 서울의 애니메이션센터와 남산 공원을 다녀왔고 넷째 주에는 파주 쇠꼴마을에서 '몸튼튼 맘튼튼' 여행을 주제로 체험학습을 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체험 학습과 더불어 청소년 가요제, 도미노마당, 애니메이션아카데미, 경제야 놀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833-2010~2)

연수구청소년 수련관 쉬는 토요일 프로그램

일 시	프로그램	대 상	장 소
6월 10일	청소년가요제	중 · 고등학생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6월 24일	몸튼튼 맘튼튼 여행(체험학습)	초등학생 40명	강화도 자연체험 농장
7월 8일	도미노마당	초등학생 30명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8월 7일~19일	애니메이션 아카데미	초 · 중 · 고생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9월 9일~10일	경제야 놀자	중 · 고생 40명	김포 청소년수련원
9월 23일	몸튼튼 맘튼튼 여행(체험학습)	초 · 중학생 동반 가족단위	강화도 자연체험 농장
10월 14일	네모 속 세상의 행복 찾기(견학&체험)	초등학생 60명	서울 애니메이션센터& 남산공원
10월 28일	경제랑 놀고 요리로 먹고	중학생 40명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주말이 즐거운 청소년 세상

우리시는 시내의 5개 지역을 '2006 청소년문화존'으로 지정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노는 토요일인 둘째, 넷째 주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5월부터 11월까지 노는 토요일에는 인천도호부청사에서 전통문화체험을 할 수 있다. 국악, 탈, 외줄타기, 국궁, 윷놀이, 자치기 등이다. (**문의** _ 438-4293, 884-0054)

또한 5월부터 12월까지 노는 토요일에 청소년수련관을 찾으면 자전거로 돌아보는 해양생태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수련관에서 장수천, 수도권해양생태공원을 왕복하는 12㎞ 구간을 돌아보는 프로그램 등이다. (**문의** _ 810-1004)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프로그램도 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에서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6시에 '신나는 우리들 세상'이라는 공연 · 참여 · 체험마당이 열린다. 청소년 동아리공연, 동요콘서트, 치어댄스, 마술, 세계문화체험, 각종 경연대회 등을 관람하거나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인천대공원 야외무대에서는 '함께 걸어가요'라는 공연마당이 펼쳐진다. 클래식과 락, 경찰호신술 시범, 뮤지컬 · 동아리 공연, 콘서트 등이 준비된다. (**문의** _ 시 가정청소년과 440-3962)

태산이 높다 하되

글 • 최재근 (인천관광공사 사장)

'태산(泰山)이 높다하되 하늘 아래 뫼이로다…' 우리 귀에 익은 이 시조는 시적 운치를 논하기 앞서 '하면 된다'는 한국혼을 일깨워준 선조의 경구로서 국민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더욱 의미있게 다가온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 태산을 온통 들쑤셔 쥐 한 마리를 잡는다) 이라든가, '걱정이 태산 같다'든가 하는 그 태산은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얼마나 높고 크기에 이런 비유가 나왔단 말인가? 과거 우리가 중국 어딘가에 있는 높고 큰 산으로만 막연히 알고 있는 태산….

중국의 산동성(山東省)에 있는 이 산은 중국 오악(五岳)의 하나로 높이가 1,524m다. 제왕이 된 사람은 이곳에 올라 봉선(封禪 : 제왕이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의식)을 올렸다고 전해진다. 대평원이 연속되어 펼쳐지고 있는 중국의 동부에서는 제법 험준하고 경치가 좋다고 하나 우리의 산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태산은 분명 그 규모보다는 중국민족의 성산(聖山)으로서 의미가 더 강한 산이다. 그 옛날의 측량술로 산의 높이를 정확히 잴 수는 없었겠으나 우리나라의 백두산(2,744m), 한라산(1,950m), 지리산 (1,915m), 설악산(1,708m)과 같은 명산은 말할 것도 없고, 어지간히 알려진 산이라면 1,500m쯤이야 가볍게 넘어서는 실정이고 보면 대단히 높은 것으로만 알고 있던 태산의 실체에 대하여 허전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산은 아직도 미답자들의 부단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을 만큼 우리에게는 깊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런데 옛 우리 조상들은 즐비하게 둘러서 있는 우리의 명산들을 제쳐두고 왜 하필이면 중국의 태산을 높은 산의 대명사로 삼았을까? 의문을 품다 못해 실망스러움을 감출 길이 없다. 시인은 과연 우리 민족의 명산 백두산의 위용을 몰랐을까? 흰 사슴이 내려와 목을 축이는 백록담과 한라산의 이야기도 못 들었단 말인가? '지리산 포수'란 말이 생겨났을 정도로 깊고 험준한 지리산, 특히 동남아 상풍객(賞楓客)들과 스키객들을 단박에 매료시키고야 마는 설악산, 세상의 금은보화가 무색하도록 빼어난 자태의 금강산, 그리고 만탑산, 맹부산, 두류산, 연화산, 낭림산, 묘향산, 소백산, 오대산, 태백산, 덕유산…. 우리나라는 가히 산의 박물관이다.

이 자리에서 태산의 허구를 폭로하고 실체적 규명을 철저히 하자는 것이 이야기의 본류가 아니다. 옥의 티를 찾아 옛 시객(詩客) 양사언을 욕되게 할 생각은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이의 작품 '태산…'에서 불굴의 정신과 끈질긴 인내를 통한 극복의 가르침을 전수 받은 것만으로 옛 시인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해야한다. 짐작컨대 측량술이나 정보가 부족했던 그 시절에는 중국이 높다하면 높은 것이고 중국이 좋다하면 그저 좋은 것이 되었을 지도 모른다. 책상머리에 앉아 한서(漢書)만 읽던 이들이라면 중국의 것을 모두 그렇게 받아들였을 법하다. 적어도 그때의 사회 분위기로서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오늘날도 선진국에서 생산된 정보나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차제에 이러한 탐구정신의 결여를 곱씹어보고 더는 같은 오류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혹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인용하여 시를 남기면 이번엔 우리의 후손들이 잘못된 동기로 여행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 가슴에 새긴 한 구절〉

"내가 세계를 정복하는 데 동원한 몽골병사는 적들의 100분의 1에 불과했다. 나는 배운 게 없어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지만, 남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였다. 그런 내 귀는 나를 현명하게 가르쳤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에 있다. 나 자신을 극복하자 나는 칭기스칸이 됐다."

CEO 칭기스칸(유목민에게 배우는 21세기 경영전략, 김종래 지음)에 나오는 대목으로 칭기스칸이 갖은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 · 존중하여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원대한 비전을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칭기스칸형 CEO로 성공하기 위한 지혜와 용기를 준다.

송암미술관 일대 문화단지로

구도심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용현 · 학익지구 개발계획과 연계해 남구 학익동 송암미술관 일대에 대규모 복합문화단지가 조성된다. 우리시는 송암미술관 776평과 지난해 6월 동양제철화학으로부터 기증받은 4천400여평 부지를 포함해 최고 2만여평 부지를 다양한 문화 · 전시 시설을 갖춘 복합문화단지로 개발하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에 본격 착공할 예정이며 문화단지가 조성되면 우리시의 문화 · 관광중심지로 주목될 전망이다.

문의 _ 시 문화예술과 440-4010

마을 담장이 예뻐졌어요

지난 4월 부평구 청천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마을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판넬식 담장벽화 조성과 다기능 정보게시판을 설치하는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직접 거리에 나섰다. 관내 취약지를 선정해 담장 8개소 450여 미터에 불필요한 벽보를 제거하고 청소 및 페인트 작업을 실시한 후 장소별로 테마를 정해 판넬벽화를 설치했다. 또 청천2동 동사무소 앞에는 각종 행정정보와 관내 기업체의 구인광고를 지원하는 전용게시판인 다기능 정보게시판을 설치했다.

문의 _ 부평구 청천2동사무소 509-8413

자원환경센터에서 운동해요~

지난 5월 24일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인 송도자원환경센터가 완공됐다. 자원환경센터는 연수구 동춘동 LNG인수기지의 8만5천여평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됐다. 하루 500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게 되며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열을 이용해 남동구와 연수구 일부 지역에 온수와 난방을 공급하게 된다. 환경센터에는 200여명이 사용할 수 있는 사우나 시설과 수영장, 헬스장, 스쿼시장을 갖춘 종합 스포츠센터도 건립됐으며 2만평 규모의 9홀 미니 골프장도 마련됐다.

문의 _ 시 폐기물자원과 440-3580

아이스링크 건립추진

송도 LNG(액화천연가스)기지 내에 국제 규모의 아이스링크가 건립될 전망이다. 1천여평 부지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700여평 이상의 링크장 2곳과 관람석 3천석을 갖춘 국내 최대 아이스링크를 만들 계획이다. 건립비는 우리시와 가스공사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며 LNG 비축과정에서 나오는 냉열을 이용해 아이스링크의 운영비를 대폭 절감할 계획이다.

문의 _ 한국가스공사 031-710-0114

대규모 시립도서관 건립

남동구 구월동 일대에 수도권 최대규모의 시립도서관이 생긴다. 우리시는 241억원을 들여 오는 9월에 착공해 2008년까지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3천900여평 규모의 시립도서관을 신축할 계획이다. 자료 · 대출실 및 열람실과 함께 다목적 공연장, 취미 · 교양실 등을 마련해 시민들의 평생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1920년 초 근대건축물인 기존 율목동 시립도서관에 대해서는 또 다른 활용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문의 _ 시 문화예술과 440-4010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인천지하철 공사(사장 김우철)가 작년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제4회 대한민국 서비스 만족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서비스 만족대상은 마케팅협회 주관으로 매년 실시되며 서비스 품질 관리와 전화응대, 역사 환경 등으로 나누어 평가된다. 이번 평가에는 서울메트로 · 도시철도공사, 대구지하철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등 전국 5개 지하철 공사가 응모했으며 5일간 서류심사와 암행평가 등을 통해 인천지하철이 우수한 성적을 받아 선정됐다.

문의 _ 인천지하철공사 451-2211

해양과학관 · 홍보관 건립

해양도시인 우리시에 해양과학관과 홍보관이 건립된다. 중구 월미공원 내 갑문지구 친수공간 9천200여 평을 매립해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해양과학관과 지상2층의 홍보관을 지을 예정이다. 해양과학관에는 스크린을 통해 잠수정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물을 체험하는 가상공간 등이 마련된다. 또 홍보관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항구인 인천항의 어제와 오늘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항만전시관이 들어선다. 해양과학관과 홍보관은 총 496억원을 들여 내년 착공해 2009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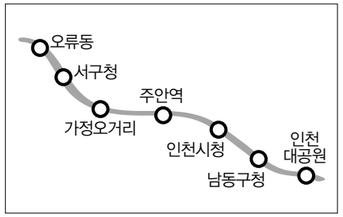
문의 _ 시 항만지원과 440-3380

서구 영어마을 9월에 오픈

서구 원창동 옛 창신초등학교가 영어마을로 꾸며져 오는 9월 개장한다. 영어마을은 숙박을 하지 않고 방과후 통학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지역내 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1일 2시간 격일제 수업을 한다. 수업은 회화와 상황별 체험 수업으로 이뤄지며 학급당 12명씩 수준별 소수정원제반도 운영된다. 폐교가 된 창신초등학교는 현재 건물 개 ·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이며 8월에 리모델링이 완료될 예정이다.

문의 _ 서구청 562-5301

인천지하철 2호선, 2013년 개통



인천지하철 2호선이 2008년 5월 착공돼 2013년 5월 개통될 예정이다.
28.9km 2호선의 노선은 서구 오류동~서구청~가정오거리~주안역~인천시청~남동구청~인천대공원 등으로 정거장 24곳과 차량기지 1곳이 건설될 계획이다. 경전철(LRT)로 추진되는 인천지하철 2호선은 경인고속도로 구간은 고가철교로 건설되며 경인전철과는 주안역에서, 인천지하철 1호선과는 인천시청역에서, 내년에 개통예정인 신공항철도와는 경서역에서 환승이 가능하다.

문의 _ 시 도시철도건설본부 451-2782

장애인 재활전문병원 건립

우리시에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진단과 입원치료를 하는 장애인 전문병원이 들어선다. 연수구 연수동 소재 적십자병원 내 3천500평 부지에 연면적 3천800평 규모로 150병상과 특수의료장비를 갖추고 건립돼 재활 전문프로그램 및 장애인들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상담 등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오는 하반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2008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문의 _ 시 사회복지봉사과 440-2660

땀방울 속, 해맑은 꿈을 꾸다

장애인 직업재활 터전인 남동장애인 종합복지관 '해맑음 땀방울 농장'은 올해도 새로운 작물을 재배해 결실을 맺었다. 지난 2005년 우리시 사업운영을 위탁받아 발달장애인과 정신지체 등 중증장애인들이 소중한 땀방울을 모아가며 재활의 의지를 꿈꾸며 농장을 일구고 있다. 농장운영을 통해 작물재배의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생산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직업적응능력을 키우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있다. 해맑음 땀방울 농장에서는 화학비료와 농약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100% 천연농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새싹채소 5종 세트와 토마토를 직접 수확해 판매하고 있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생들의 자연체험활동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문의 _ 남동장애인 종합복지관 472-3300

인천문화재단소식

〈2005 인천문화예술백서〉 발간

인천문화재단에서는 지난 5월 2005년 인천의 문화재정 및 문화예술창작현황을 묶어 '2005 인천문화예술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는 인천광역시의 시 · 구 · 군 문화예술재정에 대한 분석과 각 자치단체별 조례분석, 문화예술창작 및 문화사업활동, 인천시의 문화예술 관련 각종 지원금 사업 현황, 인천의 문화예술 관련 언론 보도 현황분석을 담았다.

인천문화포럼 '秀多'

인천문화재단은 오는 6월 9일을 시작으로 '수다포럼'을 개최한다. 이 연속 기획은 인천지역 문화의 현장을 기반으로 한 의제발굴과 대안 모색 및 정책화를 목표로 월 1회씩 총 6회로 기획되었다. 지역 내외의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돌아가며 발표와 토론 역할을 맡는 이번 포럼의 이슈는 '공간에 대한 사유'이다. 지역 유휴공간의 문화공간화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문의 _ 인천문화재단 455-7100

환경경영 대상 수상

인천상수도사업본부 남동정수사업소가 제6회 국제표준시스템경영 전국대회에 참가해 환경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 남동정수사업소는 품질, 환경, 안전 · 보건경영시스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2001년 ISO 14001(환경경영)을 도입해 현재까지 규정을 준수해 운영해왔으며 친환경적 경영성과를 거두었다.

문의 _ 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동정수사업소 870-9460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우리시는 올해 경제자유구역의 본격적인 개발과 구도심 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침에 따라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김동기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해당 실 · 국장 등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현황에 대한 보고와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수렴했다. 또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등 폭넓은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5월 한달간 남항 연결교량 사업, 수인선 복선전철사업, GM대우 R&D 시설, 계산동 여객자동차터미널 건설 등 24개 사업에 대해 이루어졌다.

문의 _ 시 정책기획관실 440-2130

오이도프, 유치 홍보 나선다

몽골 스포츠의 영웅 제베크 오이도프(57 · 몽골국립체육대학 교수)가 지난 5월 9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유치위원회를 방문해 아시안게임 인천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지난 74년과 75년 레슬링 세계선수권대회 자유형부문에서 연이어 세계정상에 오르며 70년대 최고의 선수로 이름을 날렸던 오이도프는 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로 올림픽 챔피언에 올랐던 양정모씨의 결승전 파트너로도 국내에 잘 알려진 인물. 오이도프의 인천방문은 몽골국립체육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인천전문대학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오이도프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유치위원회에서 "인천은 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할 충분한 자격이 있는 도시"라며 "몽골에 돌아가면 인천이 2014년도에 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문의 _ 인천아시안게임 유치위원회 440-2014

강화 · 영흥도, 무료환승 실시

지난 5월부터 강화와 영흥도 지역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무료환승을 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인천시내로 들어오는 강화와 영흥도 지역의 버스에 대해서만 무료환승이 가능하며 하차기준으로 30분 이내에 환승해야한다. 오는 하반기에 전면 무료환승이 가능해지며 요금은 현금 900원, 교통카드 800원의 단일요금제로 전환됐다.

문의 _ 시 대중교통과 440-3880

다시 돌아온 경인민방

경기 · 인천지역의 새 지상파 사업자에 '경인TV'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영안모자와 CBS 등이 주축인 된 '경인TV' 컨소시엄은 '경인열린방송' 컨소시엄과 경합을 벌인 결과 최종 선정됐다. 방송, 법률,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신청사업자의 사업계획 이행의지, 실현가능성, 유기적 연관성 등을 심사한 결과 경인TV 쪽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새 사업자로 선정된 경인TV는 방송위 허가 절차를 거쳐 내년 5월 1일부터 방송을 시작할 계획이다. 경인TV의 최대주주인 영안모자는 향후 5년간 방송시설과 R&D 부문에 총 900억원을 투자해 인천 · 경기 지역민들에게 사랑받는 민방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의 _ 시 공보관실 440-2060

협동화 그리면 가족애가 생겨요

우리시 건강지원센터는 지난 5월 13일 가정의 달을 맞아 인천대공원 수석공원에서 가족협동화그리기를 열었다. '행복한 가족', '우리 가족이 응원하는 월드컵', '가족사랑 인천사랑' 이란 주제로 350여 가족 1천500여명이 참가했으며 28작이 수상을 했다. 이번행사는 참가한 가족 수만큼 도화지를 붙여서 온 가족이 합심해 하나의 밑그림을 완성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문의 _ 시 인천건강가정지원센터 508-0121

장애인 콜택시 운영

인천교통공사는 지난달 중순부터 1~2급 중증장애인과 3급 정신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일반 승합차(9인승) 20대를 개조해 매일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운영한다. 요금은 일반택시의 40% 수준이며 운행지역은 우리시 전지역과 수도권 일부지역을 포함한다. 이용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회원번호를 부여해 인적사항과 주요코스를 관리하고 자원봉사자를 별도 운영하기로 했다.

문의 _ 인천교통공사 430-7226

무비자운동, 우리시가 나선다

우리시는 한국 관광객들의 무비자 하와이 방문 운동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홍보 CD를 제작해 '한국인 하와이 무비자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강기엽, 에드 탐슨)' 에 전달했다. 지난 4월26일 우리시 자매도시인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시청에서 해외명예국제자문관인 고서숙 씨를 통해 '무비자운동의 노래', '하와이 동포의 노래' 등이 담긴 홍보CD를 위원회에 전달했다. 또 지난 2003년에는 하와이 무비자 여행에 동의하는 우리시 시민 3만 여명의 서명을 받아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우리시 노창권 국제협력관은 무피 해네만 호놀룰루시장과 공무원 상호파견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했다. 우리시는 미주한인 이민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10월 호놀룰루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문의 _ 시 국제협력관실 440-2850

연세대와 토지공급계약 체결

우리시는 지난 5월8일 송도로 캠퍼스 이전을 추진 중인 연세대학교와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송도국제도시 5 · 7공구 28만평을 연세대에 공급하고 연세대는 2010년 3월까지 캠퍼스를 조성하기로 했다. 계약에는 학부학생과 외국인학생을 합쳐 최소 5000명이상 규모로 문을 연다는 내용과 스탠퍼드, MIT 등 외국학교 및 연구기관 등과 연계해 IT · BT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커리큘럼을 유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1단계사업으로 학부대학과 기숙사 등이 마련되고 1,2학년이 송도 캠퍼스에서 수업을 받게 되며 2단계 사업에서는 연구시설과 한국어학당, 대학원, 외국어학당 등이 들어선다.

문의 _ 인천경제자유구역청 453-7114

어촌체험마을 준공

지난 5월 12일 중구 무의도에 어촌체험마을이 문을 열었다. 무의도 선착장 내에 위치한 어촌마체험마을에서는 조개를 비롯해 각종 수산물 등 특산물 전시장과 무의도 인근 해안에 서식하는 바다생물의 사진도 함께 전시된다. 체험마을은 5억 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60평부지에 2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해변 산책로가 꾸며져 있다. 앞 갯벌에서는 조개와 낙지 등을 직접 잡을 수 있어 체험학습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문의 _ 인천경제자유구역청 453-7114

인천관광공사소식

관광공사 국제기구에 가입

인천관광공사는 최근 국제기구인 ICCA(국제컨벤션회의, International Congress and Convention Association)와 PATA(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 Pacific Asia Travel Association)에 공식 가입했다. 지난 4월 ICCA에 가입한 관광공사는 수 천여개의 세계학회와 협회 등에 관한 자료 및 국제회의 유치와 개발 등에 관한 자료들의 활용이 가능해졌다. 또 우리시에 국제회의와 전시 등을 더욱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유치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 5월 1일에는 관광 관련 국제기구인 PATA에 가입해 전세계 77개국 1천200여 회원사를 통해 우리시 홍보는 물론 세계 관광정보 및 통계 등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내년 4월 우리시가 PATA한국지부 총회 개최지로 선정돼 우리시의 위상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문의 _ 인천관광공사 220-5000

국내 첫 UN기구 개소

UN 아시아 · 태평양 정보통신기술 훈련센터(APCICT)가 오는 6월 16일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건물 3층에 문을 연다. 국내 최초로 송도에 들어설 UN 공식 기구인 APCICT는 교육을 위한 강의실, 회의실, 도서관 등을 마련하고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정보화 촉진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무상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이 기구가 들어서면, 우리시는 물론 한국이 UN의 아태지역 정보통신기술 인력개발교육 등을 주도할 수 있게 돼 IT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_ 시 과학기술과 440-3983

인천대, 송도 미래관 개관

지난 5월 4일 송도국제도시에 인천대학교의 미래관이 문을 열었다. 대학과 연구소, 기업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연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3년 12월 착공해 109억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천730여평 규모로 지어졌다. 미래관에는 인천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중소기업지원센터, 인천대 동북아 물류대학원, 동북아 전자물류연구센터 등을 비롯해 '씨엠아이' 등 기업연구소 9개가 들어서게 된다.

문의 _ 인천대학교 770-8114

극지연구도 송도에서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소장 김예동)가 지난 4월 24일 송도 갯벌타워로 이전했다. 국내 유일한 극지 전문 연구기관인 극지연구소는, 최근 쇄빙선 건조사업과 남극대륙기지 건설 등 굵직한 대형 연구기반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수한 연구 인력을 증원해왔다. 그에 따른 공간부족과 특수연구실험실 및 장비 등의 부족으로 연구 활동의 어려움을 겪어 송도 이전을 추진해왔다. 극지연구소는 공항과 항만이 인접해 지리적 여건이 좋은 경제자유구역에서 다른 연구 기관들과 연계해 극지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분야의 기초 및 첨단 응용과학 연구 활동을 하게 된다.

문의 _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 260-6010

일본 전기車 송도에서 개발된다

일본 10위권 내 승용차 전문회사인 미츠오카(Mitsuoka Motors Co., Ltd)사가 전기차를 개발하기 위해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에 연구개발센터를 짓는다. 지난 5월 8일 경제자유구역청은 미츠오카사와 2천200평 규모의 R&D센터 설립을 위해 총 220억원의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미츠오카사는 특수목적용 전기차량개발, 대도시의 환경친화적인 중 · 고급 전기택시차량 개발,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들의 근거리 운행용 초경량 전기차량을 연구할 계획이다. 미츠오카의 R&D센터 유치를 시작으로 경제자유구역에서 세계적인 기술보유기업의 R&D센터 유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문의 _ 인천경제자유구역청 453-7114

로봇조립 공장 첫 삽

스위스 산업용 정밀기계전문기업인 규델(Gudel Group AG)사가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내에 들어선다. 지난 4월 24일 규델사는 오는 10월에 완공을 목표로 산업용 로봇조립공장을 착공했다. 규델사는 총 600만 달러를 투자해 3천400여평에 연면적 1천500평 규모로 공장을 건립한다. 1954년에 설립된 규델사는 세계 9개국에 지사와 현지법인, 13개국에 대표사무실을 두고 있다. 1997년 한국 현지법인을 설립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GM대우, LG필립스, 삼성SDI 등에 자동차, LCD판넬 생산시설용 다굴절 로봇을 공급하고 있다.

문의 _ 인천경제자유구역청 453-7114

SUNNY FM으로 행복한 인천

경인방송에서 라디오인천으로 이름을 바꾸고 지난 4월부터 새롭게 방송을 시작한 SUNNY FM은 하루 24시간 방송을 통해 인천의 생생한 소식과 즐거운 음악을 청취자들에게 선사한다. 태양의 따뜻함을 표현한다는 SUNNY FM은 이른 새벽부터 매일 24시간 동안 흥겨운 음악과 소중한 지역정보로 인천을 좀 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갈 것이다.

새벽 6시. 인천앞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라디오인천 6층 스튜디오에는 아침방송을 준비하는 스태프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밤새 지역의 소식을 정리하는 기자들과 발음연습을 하는 프로그램 진행자, 출연할 인물들에게 새벽부터 전화를 걸고 원고를 준비하는 작가들. 라디오인천의 하루를 열어가는 '굿모닝인천'의 제작진들이다.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굿모닝인천'은 인천 최초의 인천만을 위한 지역 시사프로그램이다. 진행자는 인천지역에서 십여 년간 신문기자로 활동해온 권혁철 씨. 프로그램은 소소한 지역소식까지 모든 정보를 챙긴 뒤 지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일일이 전화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을 듣는다. 인천을 중심으로 한 시사와 교통정보, 동북아 허브도시 인천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중국 소식까지 굿모닝인천은 인천 시민들의 출근길을 알차게 꾸미기 위한 발걸음으로 하루를 내딛는다.

이른 아침 6시, '태양의 아침 한정미입니다'로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며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는 SUNNY FM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제오의 'Music on my mind'에서 최신 음악으로 활기차게 진행된다. 오전 11시부터 두시간 동안 진행되는 '박근혜의 뮤직 박스'는 박근혜 아나운서가 달콤하고 즐거운 목소리로 흥겨운 음악과 즐거운 토크를 선보이고 있고, DJ 채리의 'Sunny Music Show'는 리믹스음악의 비트 있고 활기찬 리듬을 통해 점심시간 나른한 청취자에게 활력을 제공한다. '김광한의 팝스다이얼'은 오후 2시부터 정통팝과 최신 팝에 이르기까지 두시간 가득한 음악 퍼레이드로 올드팬과 70, 80년대 청취자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4시부터 '최민경의 해피타임 90.7'에서는 지루한 오후를 책임진다.

또한 개그맨 장용과 세리가 진행하는 '신나는 라디오 인천'은 저녁 6시부터 퇴근길에 시달리는 청취자들에게 성인 가요의 세계와 인천 지역소식을 코믹하게 전달하며, 뒤를 이어 저녁 8시부터 한 시간 동안 청취자들을 찾아가는 진행자는 코미디언 송영길 씨. 그의 구수한 입담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청취자들과의 즐거운 축제를 벌인다. 하루를 마감하는 길목인 저녁 9시, 박현준의 'RADIO GA! GA!'에서는 편안한 휴식과도 같은 음악으로 청취자들에게 마음의 여유를 되찾아 주며, 오후 10시 비타민 같은 방송 '밤으로의 초대'에서 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풀어준다.

매일 밤 12시에는 오세준의 'P.S. I LOVE YOU'가 청취자들의 특별한 친구가 되어 찾아가며, 모두가 잠든 시간 새벽2시 한영우의 'All That Music'과 '4시 안녕하세요, 문영민입니다' 에서는 청취자들의 이야기와 외로움을 함께하며 새벽을 맞이한다.

이밖에도 매주 토요일 아침 7시부터 시작되는 '인천포럼'은 지역에서 실시되는 유명강사의 강의를 라디오로 한시간 반 동안 중계하며 8시 반부터 진행되는 '생활속의 동의보감'은 한의사들과 함께 생활주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웰빙 상식을 청취자들에게 제공, 일요일 7시 아침에는 '정민의 선데이 뮤직'으로 달콤한 휴일 아침을 열어주는 활력소가 되고 있다.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인천지역 연고 프로야구팀인 SK와이번스의 전 경기를 라디오로 생중계해 야구팬들에게 즐거움을 더하고 있다.

끝나지 않은 또 다른 신화의 현장

GM대우 인천유나이티드 FC 홍보관

"대~한민국!" 붉은 악마에서 비롯된 온 국민의 함성은 폭발적인 에너지로 변해 태극전사들의 핏줄로 녹아든다. 선수들의 가슴에, 다리에, 어깨에, 힘이 충만해진다. 그리고… 꿈은 이루어진다.

갈월초등학교 5학년 4반 네 친구(주정연, 김해빈, 최영진, 황윤홍)와 정연이의 동생 혜정(갈월초 4년)이는 4년 전 한일월드컵 당시 붉은색 티셔츠와 환호성의 물결을 기억한다. 아니, 생생한 느낌으로 가슴에 아로새겨 있다.

이제 다시 월드컵이다. 더 멋지게, 신명나게 응원하고 싶은 다섯 친구들이 '2006 독일 월드컵'을 앞두고 GM대우 부평본사에 마련된 인천시민프로축구단 홍보관을 찾았다. '끝나지 않은 신화'를 염원하면서….

글 • 한정민 (전 더클래스 기자) | 사진 • 김성환 (자유사진가)

시민의 손으로 만든 인천유나이티드프로축구단

'아직 초등학교 여학생들인데 인천유나이티드프로축구단(이하 IUFC: Incheon United Football Club)의 존재를 알고 나 있을까?' 의문스러웠지만 기우였다.

"인천 팀 경기가 있을 때 아빠랑 문학구장에 가서 응원했어요. 아저씨들이 너무 크게 소리 질러서 깜짝 놀라긴 했지만… 얼마나 신났었는데요."

시민축구단 홍보관 견학을 자청한 친구들이니만큼 축구에 대한 관심도 남다르다. 반 친구들 대부분이 박지성 선수의 사진앨범을 갖고 있다니 오늘 만난 소녀들뿐 아니라 이제 축구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범국민적 스포츠가 된 모양이다.

시민과 기업으로부터 5만여 건이 넘는 시민주를 공모해 200억여 원의 자본금으로 2003년 3월 창단한 IUFC.

GM대우는 IUFC를 창단 초기부터 후원해왔다. 그리고 창단 2년만인 지난해 K리그에서 통합 준우승이란 값진 결과를 얻은 축구단의 저력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앞으로도 축구단과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의미에서 부평 본사 자동차홍보관 안에 IUFC 홍보관을 설치했다.

"자, 보세요. 홍보관 모양이 문학축구경기장 지붕처럼 돛단배 모양이죠?"

꼬마숙녀들의 귀는 삼촌같이 자상한 GM대우 대외홍보팀 김병수 대리를 향해 쫑긋 세워졌다.

"축구장 구조로 설계된 홍보관 내부엔 선수들의 모형을 이용한 포토존, 인천용품 전시 존, IUFC와 GM대우 홍보존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또 홍보관 중앙의 PDP를 통해 주요 경기장면을 영상으로 볼 수 있답니다."

GM대우와 함께하는 IUFC

홍보존에서는 IUFC의 탄생과정과 역사를 한 눈에 보여준다. GM대우가 IUFC와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해외프로축구단 초청경기, 가족의 달 행사, 소외계층을 위한 경기초청, 선수 사인회, 유소년 축구캠프 등을 매년 함께 개최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던 영진이의 어깨가 으쓱해진다.

"저희 아빠도 GM대우에 다니세요."

지역 프로축구단의 메인 스폰서가 아빠가 다니시는 회사라니 자랑스러운 모양이다.

축구단의 활동상과 선수가 사용하는 축구용품을 전시한 '용품존'에서 친구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가득 찬다.

"이것보세요 주장 임중용 선수가 신었던 축구화예요." "김학철 선수 축구화도 있어요."

아이들은 땀에 전 낡은 축구화를 아이들은 신기한 듯 바라본다. 급기야 소녀들은 작년에 선수들이 입던 유니폼, 응원용품인 머플러, 메가폰 등을 직접 둘러보고 불어보고 두드리기 시작한다. 얼굴이 발갛게 상기될 때까지.

스타급 선수의 모형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은 인기 짱. 저마다 멋진 포즈를 취하고 '찰칵 찰칵' 카메라 셔터 소리만큼 경쾌하게 웃는다.

GM대우 장현근 대외홍보팀 부장은 "GM대우 부평공장 생산시설이나 자동차 홍보관을 견학하러 온 시민들이 IUFC 홍보관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며 "IUFC 홍보관은 GM대우 공장 방문을 원하는 시민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말한다.

자동차, 또 하나의 꿈이자 신화

"우와~ 멋지다" 자동차 홍보관에 진열된 매끈한 몸매의 차들을 보자 아이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

자동차의 미래를 어느 정도 내다볼 수 있고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해 볼 수 있어 모터쇼에서 스포트라이트를 가장 많이 받는다는 '컨셉트 카'. 친구들은 공상과학영화에서나 나옴직한 컨셉트 카에 직접 타 보며 입이 귀에 걸린다.

꿈★은 비단 4년 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첫 승을 넘어 16강, 8강, 4강에 진출하면서 이룬 것만은 아니다.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자동차도 불과 수십 년 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꿈이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꿈의 자동차'인 미래형 컨셉트 카도 조만간 현실이 되어 우리 눈앞에 선보이게 될 것이다.

자동차 제작과정도 이해하기 쉽게 전시되어 있다. 디자인에서부터 철판 용접까지 실제로 보니까 마냥 신비롭기만 하다. 특히 차량의 내부까지 들여다 볼 수 있는 '커팅 카'는 친구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아~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서는 거구나.' '스프링이 없으면 바닥의 충격이 그대로 운전자에게 전해져 엉덩이가 아프겠는걸?'

웬만한 어른도 알지 못하는 차의 구조를 아이들은 눈으로 보며 이해하고 있다.

차에 들어가는 엔진 또한 크기와 모양이 다양하다.

"왜 더 작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해빈이가 묻는다.

"아주 작은 어린이가 큰 마차를 끌기엔 힘들겠죠? 같은 원리예요. 큰 차일수록 엔진도 커야 해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김 대리의 대답이다.

어느새 헤어질 시간. 축구 홍보관과 자동차 홍보관을 연달아 견학한 아이들의 손엔 선물로 문구세트와 미니카가 들려 있다.

하지만 우리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 지역 프로축구단을 후원, 홍보관까지 만들고 국내외 각계 인사와 시민, 학생들이 매년 3만여 명씩 이곳에 다녀가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한 윤홍이, 영진이, 해빈이, 혜정이, 정연이가 오늘 가져가는 것은 문구세트와 미니카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사는 인천에 멋진 프로 축구단이 있고, 세계 최고의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가슴속 깊이 뿌듯한 자부심을 담았을 것이다.

견학안내

GM대우 본사내 IUFC 홍보관은 GM대우 부평공장 방문을 원하는 시민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대우자동차 생산시설과 홍보관을 둘러보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매주 월~금요일 20명 이상 단체로 관람할 수 있으며 부평공장 대외홍보팀에 사전 방문 예약을 해야 한다. (**문의** _ 520-2143, 2144)

그밖에 가볼만한 월드컵관련 홍보관

문학경기장 월드컵홍보관 2002 한일월드컵 한국 4강 신화의 단초를 마련한 문학경기장 북서측 1층에 522㎡ 규모의 '월드컵기념관'이 자리 잡고 있다. 이 기념관에는 히딩크 감독, 월드컵 태극전사들의 모형 인형과 함께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포르투갈전에서 뛰었던 선수 유니폼과 축구공, 홍보물, 사인볼 등 총 27개종 211개의 전시물을 볼 수 있어 월드컵 당시 태극전사들의 열기를 느낄 수 있다. 문학경기장 모형, 사용자재, 2002년 월드컵 상징 부조 벽화, 경기장 소개, 월드컵 역대 포스터 등도 눈요깃감이다. 한 켠에 인천시정에 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홍보관 운영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동절기는 오후 5시까지)이며, 자원봉사자(영어, 일어, 중국어 통역 가능자)가 배치돼 홍보관 및 경기장 시설에 대한 안내를 해준다. (**문의** _ 456-3100)

부평 월드컵삼총사기념관 한국 축구대표팀의 중원을 책임지는 부동의 미드필더 '진공청소기' 김남일, 자로 잰 듯한 정교한 프리킥을 자랑하는 그라운드의 '꾀돌이' 이천수, 한국 축구선수 중 가장 빠른 스피드를 뽐내는 '총알 탄 사나이' 최태욱의 공통점은? 2002년 월드컵 스타이기 전에 세 선수는 인천 부평고 동문이다. 김남일과 이천수는 4년 전 한일월드컵에 이어 2006 독일에서 열리는 월드컵에도 출전한다. 부평역사 지하 1층에 110㎡ 규모로 마련된 삼총사 기념관은 한국 축구 메카로서의 부평 이미지를 부각하고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부평을 널리 알리는 공간. 김남일, 이천수, 최태욱 선수의 기증품 및 사진, 역대 월드컵 공, 2002년 월드컵 기념품 등이 전시돼 있다. 멀티미디어 관에서는 부평의 역사, 풍물대축제 영상과 함께 2002월드컵의 명장면이 상영된다. 기념관 운영은 매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문의** _ 부평구청 문화공보과(509-6442), 부평월드컵삼총사 기념관(521-3675))

인천음식 요리조리 | 꽃게탕

부드러운 속살 오롯이 내주다

글 • 김미희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정식 (자유사진가)

니들이 게 맛을 알아?

꽃게라고 다 같은 꽃게가 아니다. 한때 광고에서 나온 유행어처럼 제대로 된 게 맛을 음미해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특히 올해처럼 3월말까지 추위가 길어지면 제철이 되어도 온전하게 토실토실한 꽃게를 구경하기조차 힘들어진다.

하지만 연평도와 백령도 등 국내 최대 꽃게 어장이 자리한 우리시의 미식가라면 누구보다도 꽃게의 참맛을 알고 있을 것이다. 송도, 소래, 연안부두 등 우리시 곳곳에는 맛과 전통을 자랑하는 꽃게음식점이 모여있고 꽃게거리가 형성돼 있을 정도다. 그중 가장 오래된 곳으로 알려진 곳이 소암마을이다. 송도유원지에서 송도비치호텔을 지나 직진하면 지금은 동막으로 더 잘 알려진 소암마을이 나온다. 본래 토박이말로 '쉬암말' 이었으나 '소암말' 로 바뀌고 한자로 음차해 '小岩마을' 이라고 쓰고 있다. 이곳에 가면 아직도 소박한 시골집들과 꽃게음식점들이 올망졸망 모여 있다. 당시 꽃게가 그곳 앞바다에서 흔하게 잡혔고 주민들의 생계유지 수단이었음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 매립과 개발 등으로 400여년 꽃게마을의 역사는 점점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

일등 꽃게, 송도에 살과 껍데기를 묻다

다행히도 거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송도꽃게거리' 가 형성돼 인천 대표음식인 꽃게탕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20년도 훨씬 전, 송도유원지 로터리 주변에는 꽃게찜과 조개탕 등을 팔던 포장마차들이 수두룩했고 차츰 자리를 잡아가며 가게를 얻어 꽃게거리가 조성된 것이다. 충남서산회집(사장 안오순, 68)을 비롯해 많은 음식점들이 초창기 멤버 1호다.

그 당시 사람들의 입맛이 소박했던 탓인지, 꽃게 고유의 맛을 즐기려고 했던 탓인지 대부분 아무 양념이 없이 꽃게찜으로만 팔았다고 한다. 안오순 할머니 역시 포장마차에서 꽃게찜으로 시작을 했으나 고향에서 담벼락의 늙은 호박을 뚝뚝 썰어 넣고 된장을 풀어 끓여먹던 꽃게탕이 그리워 집에서 하듯 그대로 맛을 내기 시작했다. 그렇게 32년을 한결같은 맛만 고집했으니 우리입맛이 고급화되었다는 말도 무색해진다. 지난 98년 우리시 향토전통음식 품평회에서 우수하게 평가받은 이 집을 비롯해 꽃게거리 음식점들은 변함없는 맛으로 사철 꽃게탕이 제철(?)을 맞은 듯 손님들로 북적인다.

안할머니는 7남매에게 그 비법을 전수해 많은 손님들에게 그 맛을 나눠주고 있다. 이미 매립된 지 오래라 그 옛날 송도 앞바다에서 잡은 꽃게의 맛은 아니겠지만 대신 연평도, 백령도에서 나오는 알이 꽉 찬 암게만을 골라 탕을 끓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주문할 수 있다. 일등상품으로 판정된 꽃게들만 송도 꽃게거리에 입성할 수 있으니 송도에서 생을 마감한 꽃게들은 적어도 명예롭지 않을까?

샥시, 꽃게탕집 내도 되겠시유~

일일요리사 강규임(남동구 구월동, 35)씨는 충남서산회집 안할머니의 손맛을 이은 막내아들 조은행 씨의 강의를 받는다. 청출어람이라고 어머니가 알려준 노하우에 또 다른 비결을 더해 이 집 특유의 꽃게탕 맛을 내고 있다. "꽃게탕은 실패하기 십상이라 선뜻 요리를 못해요. 비싼 재료 망치면 사 먹느니만 못하잖아요. 특히 집에서 하면 이상하게 비린내가 많이 나요."라고 풋내기 요리사가 은근히 물어오자 조 씨는 "사실은 화력이 중요해요. 집에서 쓰는 불은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화력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비린 맛을 없애기 쉽지 않거든요. 끓는 물에 꽃게를 살짝 데쳐서 사용하면 비린 맛을 없앨 수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집 꽃게탕에는 단호박이 들어가 맛이 좋대요."라고 친절하게 알려준다. 시키는 대로 하나씩 따라 해 꽃게탕이 완성되어가자 지켜보던 안할머니는 비법이 공개돼 은근히 걱정스러운 듯 하다. 하지만 젊은 새댁이 근사한 꽃게탕을 끓여낸 것이 대견스러운지 꽃게탕집 하나 내보겠느냐고 농담반 진담반 종용한다.

여러분도 일일 요리사가 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주부는 〈굿모닝인천〉 편집실 (440-2072)로 연락 주세요.

꽃게탕 맛나게 끓이기

〈재료〉 꽃게(2마리), 파, 다진 마늘, 양파, 감자, 쑥갓, 단호박,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 다시마와 각종 야채를 끓여 우려낸 육수

〈만드는 방법〉

① 암게 고르기-배꼽이 뾰족한 삼각형 모양이면 수게이고 둥근 삼각형 모양이면 암게다.

② 준비된 육수를 센 불에 끓인다. 팔팔 끓을 때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등 양념을 넣고 다시 끓인다.

③ ②가 끓으면 파, 양파, 감자, 단호박 등 야채를 넣고 다시 끓인다. 감자는 국물을 부드럽게 하고 단호박은 달달한 맛을 낸다. 다시 팔팔 끓으면 손질한 암게를 넣고 다시 끓인다. 상큼한 향을 내기 위해 쑥갓을 넣는다.

〈알아두기〉

① 꽃게는 3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 전성기를 두 번을 맞는다. 알을 풀기 전인 봄철에 먹는 암게라면 영양도, 맛도 만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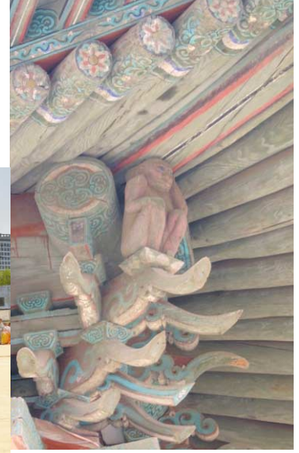
② 꽃게는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하며 당뇨병 치료, 간 기능 강화에 탁월한 타우린이 많이 들어있다. 특히 산후풍, 월경불순 치료 등 여성들에게 좋다.

김치~~ 찰칵

봄운동회
5월 봄운동회에 나선 계주 대표
김훈희 (부평구 십정2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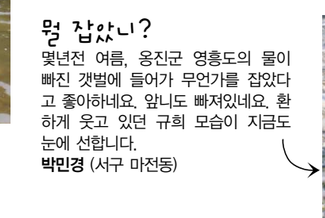
때 이른 나들이
때 이른 나들이에 나선 아이들. 바람 세찬 공원 안에서 김치하고 웃으라 했더니 웃는 것인지 우는 것인지 입만 웃고 있던 모습에 함께 갔던 사람들 모두 한바탕 웃음보를 터뜨렸지요~.
김영선 (남구 숭의동)

"엄마 엄마, 나 물고기 잡았어"
작년 남편 휴가때 큰 맘 먹고 냇가에 놀러 갔었는데 아이가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요. 사랑한다 은정아. 올해에는 놀러 많이 다니자.
최경애 (연수구 청학동)



전등사 대웅전의 비밀
대웅전의 네기둥 위에 벌거벗은 여인의 조각상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대웅전을 만들던 목수가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간 여인을 괴씸히 여겨 알몸으로 추녀를 받치고 지내라고 그리 지었다는데… 도망간 여잔 잘 살았을까요? 여러분도 확인해 보세요~강화 전등사에서….
박지애 (남동구 구월1동)

철봉
4살 때 어느날 봄 가족과 공원에 가서 철봉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이제와 보니 참 우습다. 벌써 5학년이 되어 지금은 태권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 앞으로도 무슨 운동이든 열심히 해서 건강하게 자라야지.
백두산 (서구 석남1동)



뭘 잡았니?
몇년전 여름, 옹진군 영흥도의 물이 빠진 갯벌에 들어가 무언가를 잡았다고 좋아하네요. 앞니도 빠져있네요. 환하게 웃고 있던 규희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박민경 (서구 마전동)

어린 사색
작년 여름에 사승봉도로 여름휴가를 갔지요. 30여분을 걸으면 섬의 절반을 볼 수 있는 그 곳.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제 첫돌이 지난지 3개월도 안된 우리 아가의 표정은 삶의 깊이를 깨달은 듯 바다를 보며 더욱 깊은 사색에 빠졌있네요. 아름다움과 자연의 모습을 지닌 사승봉도처럼 우리 아가도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임순권 (계양구 계산동)

립스틱 짙게 바르고
아이를 등에 업고 나가면 '고놈 참 실하게 생겼다' 며 아무도 여자애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생긴 것과는 달리 엄마 화장품에 관심이 많았던 아이. 이도 나기 전인데 초콜릿을 잔뜩 먹고는 흡족히 웃는 모습이라니… 지금은 어떠냐구요? 아주 예쁜 여학생이 되었는데 이 사진을 보면 결코 자기가 아니라고 딱 잡아 뗀답니다.
최윤정 (서구 검암동)

장원에 도전하세요 〈굿모닝인천〉에서는 독자여러분의 사진을 공모합니다. 주제는 따로 없으며 계절에 맞는 추억의 사진이나 인천의 아름다운 모습, 사연이 담긴 사진 등이면 환영합니다.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100자 이내)을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보내드립니다. 특히 응모하신 작품 중에서 가장 재밌고 좋은 사진은 장원으로 뽑아 문화상품권 1만원권 3장을 드립니다. **이달에는 아쉽게도 장원이 없습니다.**

야심만만 재테크

글로벌시대 해외투자에도 관심을

글 • 김전욱 차장 (HSBC은행 인천지점 PB 454-7013)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글로벌시대, 세계화 등의 말을 아주 친숙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름휴가, 각종 연휴, 심지어 추석 · 설 등의 명절에까지 국제공항은 각종 짐과 배낭을 짊어진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이렇게 글로벌화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 아니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투자에 있어서도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에 임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다년간 투자자들의 자산을 관리하며 금융기관에서 일해 온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그 대답은 분명 아직은 'No' 라고 말할 수 있다. 아직까지도 많은 투자자들은 '펀드' 하면 주식시장, 그것도 대부분 국내주식시장을 생각한다. 즉 대다수 국내 투자자들의 의식 속엔 '펀드=(국내)주식' 이란 대명제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과거 우리 주식시장이 냄비시장이라고 폄하되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아직까지도 펀드투자는 위험천만한 투기 내지는 해서는 안될 일 등으로 머리 속에 각인되어 있다.

빙산의 일각 국내주식형 펀드

실제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상품은 투자에 있어서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은 다양한 해외펀드 및 오일, 원자재 등에 투자하는 파생상품펀드가 넘쳐난다. 그리고 이러한 펀드들 중 많은 상품들은 기존 국내주식형펀드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의 고수익 내지는 안정성 등을 가지고 있다. (물론 투자의 기본 철칙인 고위험 고수익, 저위험 저수익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실제로 작년 한 해 50%가 넘는 높은 성장을 하며 많은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안겨주었던 국내 주식시장(KOSPI)의 경우 올해 들어선 현재까지 4%가 조금 넘는 성장을 하며 투자자들에게 역시나 하는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그러나 조금만 눈을 돌려 본다면 사정은 전혀 다르다. 최근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BRIC 국가들의 수익률을 예를 들면 브라질 24% , 러시아 55%, 인도 34% , 중국 37% (이상은 5월 15일자 기준 연초대비 수익률임) 등 국내시장 대비 월등한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 외에도 우리나라보다 안정적인 선진국 시장을 보더라도 미국 6.1%, 독일 9.3%, 프랑스 9.2% 등의 수익률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과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실제로 조금만 시야를 넓혀 연초에 해외시장에 투자했다면 그동안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는 말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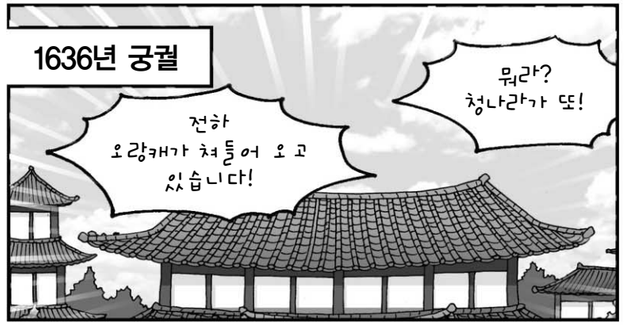
전문가에 의한 사후관리가 중요

물론 많은 분들께서 해외펀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위험요소를 예로 들며 국내시장의 우위를 강조하는 말을 하고 있고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환율문제, 정보취득의 어려움 등 해외펀드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위험요인들은 적절한 사후관리 및 위험관리기법이 함께 수반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환율 문제의 경우 선물환 헤징을 펀드 매입시 함께 조치하면 되고, 정보취득의 경우 가입한 금융기관 및 관리직원에 의한 적절한 사후관리 및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위험은 국내시장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덜할 수도 있다.

처음 필자와 함께 투자에 대해서 상담하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항상 먼저 하는 얘기는 '투자니 펀드니 이런 말들 잘 모른다. 그저 남들이 수익이 많이 났다기에 한번 해보고 싶다. 잘 부탁한다.' 는 말이다. 물론 당연한 말이다. 투자자의 대부분은 잘 모를 수밖에 없다. 투자자는 투자를, 그리고 최적의 투자처 선택과 적절한 사후관리는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투자의 모델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을 적절히 이용하여 투자처를 다양화한다면 분명 지금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질 것이다.

김상용과 충렬사

카툰니스트 • 이영호 (kaljebi@paran.com)



혈액에 기름때가 쌓인다

글 • 이무일 원장 (인천시한의사회 홍보이사, 화생당한의원 551-7582)

고지혈증은 피를 끈끈하고 탁하게 만들어서 결국 혈액의 성질과 상태를 질병의 상태로 먼저 변화시키고 이어서 혈관을 손상시켜서 혈관염이나 말초순환 장애를 일으킨다.

이것이 뇌에서 일어나면 뇌경색, 심장에 직접적인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서 일어나면 우리가 흔히 심장마비라고 말하는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고지혈증의 예방을 위해서는 간의 해독기능을 향상시켜 간에 쌓이는 중성지방을 없애주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며칠 전 본원에 오른쪽 손발에 힘이 빠져서 운전하기가 갑자기 힘들어졌다고 호소하는 40대의 남자가 내원했다. 손발에 힘이 빠지고 감각이 둔해지면 중풍이 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급히 왔다는 것이다. 평소 술 담배가 잦고 배도 많이 나와서 경동맥을 초음파 촬영해본 결과 다량의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여있었고 굵직굵직한 혈전들이 혈액을 타고 떠돌아다니고 있었다. 이런 혈전들이 뇌로 가는 혈관을 막는다면 분명 뇌경색이 올 수 있는 상황이라 긴급한 경우에 행해지는 설하정맥출혈요법인 금진옥액요법을 시행해서 증상이 어느 정도 소실되기는 했지만 위험천만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고지혈증은 글자 그대로 피 속에 기름(지방)이 정상보다 많다는 것이다. 이처럼 피 속에 기름이 많이 쌓이는 원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기를 많이 먹어서 오는 것만은 아니다. 고기 외에도 칼로리의 과다 섭취에 의해서, 술이나 약에 의해서, 유전적인 영향에 의해서, 또는 비만이나 간 질환, 당뇨 같은 질환에 의해 이차적으로 올 수도 있다.

고지혈증은 피를 끈끈하고 탁하게 만들어서 결국 혈액의 성질과 상태를 질병의 상태로 먼저 변화시키고 이어서 혈관을 손상시켜서 혈관염이나 말초순환 장애를 일으킨다. 또한 고지혈증은 동맥에 죽상경화를 일으켜 혈전을 만들어 혈관을 막아버린다. 이것이 뇌에서 일어나면 뇌경색, 심장에 직접적인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서 일어나면 우리가 흔히 심장마비라고 말하는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이런 심각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고지혈증의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간의 해독기능을 향상시켜 간에 쌓이는 중성지방을 없애주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간에 부담을 주는 과음이나 과식은 기본적으로 피하면서 간의 열을 내려주고 간 기능을 향상시켜주어 간염이나 간경화치료에도 사용되는 울금이나 강황, 인진쑥, 시호 등이 첨가된 한약이나 약차를 복용해서 간의 해독기능을 높여주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적인 약재가 좋다고 해서 함부로 써서는 안된다. 약재를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한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오히려 더 간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고지혈증이 이미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양파나 통마늘, 계피 등을 달여서 평소에 마시면 고지혈증의 치료와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된다. 한약재 중에는 단삼, 산사, 상기생 등의 약재가 고지혈증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난후에 커피보다는 녹차를 즐겨먹는 습관도 고지혈증예방에 도움이 된다.

흡연은 고지혈증으로 직경이 좁아진 혈관을 더욱 수축시켜 뇌혈관질환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더 높여주므로 고지혈증을 가진 분들은 반드시 삼가야 한다.

먹을 것이 풍족해진 현대에는 몸이 허해져서 건강을 해치는 사례는 소아나 노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점 보기 드물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한의원에서 보약을 먹어도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분들은 오히려 혈액과 간을 깨끗하게 하는 치료나 관리방법을 문의해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인 치료로 가는 방법일 것이다.

댄스로 매력적인 몸매 가꾼다

이제 곧 신나는 바캉스의 계절, 젊음의 계절 여름이 다가온다. 본격적인 노출의 계절이 다가오면 걱정되는 것이 비만이다. 여름의 문턱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다이어트에 돌입한다면 이미 늦은 시기. 최소한 2개월 전에 준비하고 몸매관리에 들어가야 매력적인 몸매를 가꿀 수 있다.

그렇다면 몸매관리에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살을 빼고 몸짱을 만들고자 운동에 매달리지만 달리고, 들어올리고 정말 지겹고 힘겹기만 하다. 가장 효과적이면서 즐겁게 살을 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바로 매혹과 관능의 댄스, 밸리댄스를 배우는 것이다.

숭의종합경기장 체육관에서는 퇴근 후 밸리댄스에 열중인 직장인들을 만날 수 있다. 밸리댄스는 터키 왕실의 전통 춤으로 주로 허리와 골반을 이용한 동작이 많아 허리살과 뱃살에 그만인 운동이다. 화려한 의상과 현란한 댄스동작은 처음 접한 사람마저도 그 깊은 매력에 푹 빠진다고 하는데 많은 동호인들이 이곳에서 즐겁게 활동 중이다. 숭의종합경기장은 수영, 헬스 등의 시설을 갖춘 종합체육시설로서 밸리댄스외에 째즈댄스, 사교댄스 교실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 댄스매니아에게는 안성맞춤인 장소이다.

엘리트선수 위주의 체육시설이었던 숭의종합경기장은 이제 인천시민의 웰빙센터로서 개방되어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50m의 수영장은 수영동호회원들에게 사랑받는 운동장소이며 미스터인천 출신인 전문 헬스지도자들의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운동처방과 관리는 찾는 이들 대부분 3개월이면 짜릿한 체형변화의 효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제 곧 월드컵 바람을 타고 전국이 붉은 물결과 축구열풍으로 들썩일텐데 이곳에는 천연잔디구장에서 프로출신의 지도자로부터 축구를 배울 수 있는 유소년, 성인축구교실이 준비되어 있다. 공부와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곧 다가올 노출의 계절, 이곳 숭의종합경기장에서 정열의 댄스와 내게 맞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아름다운 몸매를 가꾸는 것은 어떨까?

문의 _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숭의종합경기장 (882-1034, 019-241-3162)

바이올린, 인생, 그 슬픔과 기쁨의 주인공

조화현 씨

글 • 김 류 (시인) | 사진 • 김보섭 (자유사진가)

공교롭게도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흐린 하늘은 비를 뿌리기 시작한다. 빗줄기가 그다지 사납지는 않지만 10분 이내에 여자의 바이올린 교습소를 찾지 못하면 물에 빠진 생쥐처럼 흠뻑 젖고 말 것이다. 그러나 목적지 위치를 자세히 알고 오지 않은 불찰은 전적으로 이쪽 탓이다. 그렇기는 해도 멀리 떨어진 아파트 단지와 횅하니 뚫린 대로뿐이니 어디, 어느 처마 밑으로 달려가 비를 그을지 막막하기만 하다. 하필이면 이런 날에 약속이 될 것이 뭐람.

그렇게 몇 발짝을 가다가 이내 마음을 고쳐, 이것도 다 인생의 일부분일 것이란 생각을 한다. 설혹 대학 교수가 되어 있었다 해도 비에 젖는 날이 있을 것이며, 지금보다 몇 배 더 유명한 시인 대접을 받는다 해도 흙바람에 쓸릴 날은 있을 것이다. 그래. 지금 이 빗줄기야말로 무한한 삶의 가치와 부(富)를 사유하게 하는 상징이며, 더없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자.

바이올린 여자를 만나 그녀의 삶의 한 귀퉁이 그 모습을 들여다볼 것이다. 잠시 앉아서 그녀의 음악을 듣고, 그녀와 담소하고, 좀 있다가 그녀의 배웅을 받으며 돌아서 나오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편하게 방바닥에 엎드려 메모를 정리하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그녀에 대해 몇 줄의 문장을 쓸 것이다….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해 보면 얼마나 멋있는가.

그렇게 마음속이 편해지니까 비로소 이마로 흘러내리는 빗방울이 기분 좋게 느껴지고 걸음도 느릿느릿 걸어진다. 초록색 상의가 완전히 젖어 검은색이 되어서야 옥련동 쌍용아파트 상가에 도착한다. 그런 마음을 알아챈 것일까. 여자는 미안해하거나, 짐짓 놀란 체하는 기색조차도 띄지 않은 채 무엇이 기쁜지 웃음을 묻힌 두 눈을 그저 조금 크게 뜰 뿐이다. 비에 젖어 낡아가는 한 인생은 그렇게 유쾌한 심정으로 여자의 음악학원에 도착한다.

"상가 안인데 옆 가게에서 뭐라 하지 않을까?"

이쪽이 근무하는 모 협회 맞은편 방에서 3개월째 매일 똑같은 합창곡을 연습하고 있는 합창단이 있어서 한 혼잣말이었다.

"음, 저 좀 보세요. 받혀주지 않아요?"

성격이 들창처럼 밝고, 풀꽃처럼 착하고, 악기소리처럼 젊은 것은 하늘이 내린 여자의 장점일 것이다. 앞 사람을 보며 웃음을 예쁘게 짓는 습관도 역시 그렇게 받은 축복일 것이다. 허름한 삼류 영화를 보면서도 줄줄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여자의 심성이 곧 신이 골라 점지하신 선물일 터이다.

눈꺼풀 속으로, 타들어 가는 듯한 상의의 붉은색, 흰 머플러, 치렁하게 쏟아져 내리는 검은 머리 다발의 폭포, 그리고 말라 보이는 검정 바지 스타일의 엄숙함, 또 그 반대의 경쾌함.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자유로이 코디하고 있는 삼십대 후반의, 바이올린 여자의 이름은 틀림없는 행복일 것이다.

"이름은 조화현(趙華玹)이구요. 박문여고 나왔구요. 서울서 실패하고는 바닷물이 멀고 맑은 작은 도시로 갔지요. 그래서 거기 학교 관현악과를 졸업한 거에요. 그게 좀 나를 괴롭혀서 자주 수평선을 마시고 취하고, 마시고 취하고 그랬거든요."

바이올린이라는 악기의 목소리가 그래서 그런가. 여자의 말씨는 꼭 그렇게 젖어드는 듯하면서 또 한편 감정의 어느 구석을 활로 문지르는 듯하다. 떨리기도 하고, 날카롭게 들쑤시기도 하고. 어찌 보면 바이올린이란 녀석은 늘 울음을 참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울기 직전의 자주색 눈매 같은 소리! 사내도 여자도 아닌 그 눈빛의 고음! 눅눅하게 취한 듯한 저음. 아닐까?

여자는 기악을 하는 음악인 치고는 손, 손가락이 작은 편이다. 바이올린 녀석도 그런 것 같다.

"손이 작아서 악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으려는데, 여자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 병치레를 자주 했다는 말, 피아노를 쳤었는데 병 때문에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졌다는 말, 바이올린으로 진로를 바꾸었다는 말, 그리고는 인천에서 열렸던 콩쿠르는 거의 휩쓸었었다는 말, 생상을 좋아한다는 말, 중학교 때부터 마음에 두었던 오빠 친구를 고등학교 시절 끝내 미국으로 떠나보냈다는 말을 길게, 길게 들려준다.

이제 8평 음악실 안은 이쪽에서 여자에게 고집해 하는 수 없이 여자가 선사하는 문 리버(Moon River)의 은물결이 잔잔하게 부서지기 시작한다. 비 오는 날의 바이올린은 정말 슬프면서 사랑스러운 존재다. 아름다우면서도 이상스럽게 슬프게 보이는, 왜 그런지 말하기 어려운, 여자들의 그 서러움 같은 게 왜 바이올린 선율처럼 강물이 되어 서러운 것인지….

"절대 내 팸플릿 접지 마세요. 얼굴 사진 접히니까요."

여자가 모 지방지 인터뷰 기사를 내밀며 장난스럽게 말한다. 여자는 '아이신포니에타(i-SINFONIETTA)'라는 단원 13명의 현악 앙상블 단장이다. 이들은 1년 두 번 정기연주회와 청소년을 위한 연주회를 갖기도 하고, 사계절 연주회도 개최한다고 한다. 저마다 직업이 다른 멤버들이 모인 앙상블이란 것이 말처럼 꾸려 가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운영 자금 부족도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닐 터이고. 그러나 바이올린 여자는 웃는다. 행복한 얼굴빛이다. 언젠가는 든든한 후원자가 나타날 것을 믿으니까 말이다.

몇몇 아이들 레슨, 연습이 있는 수요일에는 부흥초등학교에 가서 선생님들 바이올린 레슨, 저녁에는 교사 현악앙상블 지휘로 한 주일을 산다. 물론 다른 오케스트라에도 드문드문 참가한다. 그것이 여자와 아이, 두 사람 육신이 삶을 살아가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 모든 것이 여자의 선택이었는지.

"혹시 자유주의자…?"

이쪽에서 또 이렇게 질문하려는 순간, 엉뚱하게도 아프리카 어느 오지 나라, 내전으로 피폐해진 그 나라가 슬프다고 한다. 그리고는 시각장애인 테너 안드레이 보첼리의 노래를 틀어 놓는다. 여자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맛본 세 번의 깊은 좌절, 모래밭, 기쁨과 슬픔, 문득 이런 것이 인생이라는 생각이 든다. 젖은 이쪽의 옷이 다 마른 것도, 바이올린을 잡은 여자의 눈빛이 타오르는 것도 틀림없는 인생의 일부인 것이다.

다시 또 한 곡, 온몸으로, 영혼으로 활을 잡고 연주하는 모습이 아주 열정적이다. 저 순간이 고통도 쾌락도 없는 어떤 법열(法悅) 같은 느낌일까. 찡그리기도 하고, 웃는 표정도 하고, 쓰러질 듯하기도 하고, 꼿꼿이 승천할 것 같기도 하다. 오, 연주자들의 해탈이여.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외경스럽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다. 그날 황사가 섞인 비를 맞고 걸으며 그것이 인생의 자유이며 부자라고 생각한 그 답, 그 메아리인 셈이다.

"저는 스카프를 좋아해요. 가지고 있는 것만 열 개가 넘어요."

연주를 마치고 여자는 난데없이 스카프 이야기를 한다. 따듯하면서 스타일을 연출을 하는데 아주 유리하다는 지론. 날씨는 벌써 한여름을 기웃거리고 있는데 스카프라니. 그러나 여자의 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수첩에 따라 적는다. 눈을 감아도 보일 것 같은 여자의 긴 스카프의 휘날림. 흰 강물의 흐름.

여자는 틀림없이 언제나 환할 것이고, 섣부르게 울지 않는 삶을 살 것이다. 눈동자 깊숙이 자신을 응시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지휘할 것이다. 강물은 흐르고 거기에 빗줄기가 내려 뽀얀 안개를 피워 올리기도 할 것이며, 노을이 가끔 찾아와 그 붉은 빛으로 더욱 성숙한 저녁이 되기도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며 바이올린 현들이 퉁겨 내는 선율을 귓속에 담는다. 돌아가서 부지런히 메모를 해야 할 것 같다.

※주변에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에 소개하고 싶은 인물이 있으면 전화(440-2071)로 추천해 주십시오.

애완동물 키우니 너무 좋아요

우리집 세 아이들은 유별나게 동물을 좋아한다. 강아지 사달라고 조르기를 몇 년. 아파트에서는 애완견 키우기가 쉽지 않다며 마당 있는 집으로 이사하면 사주겠다고 미룬 지가 언제인지 모른다. 생각다 못해 작년 연말에 사슴벌레 몇 마리를 인터넷으로 구입하게 되었다. 한 마리는 성충, 두 마리는 아직 번데기인 유충이었다. 택배아저씨가 가져오신 시간이 밤 10시가 다 되어서 아이들이 사슴벌레 먹이를 줘야 한다고 난리다. 며칠 굶었을 거라는둥, 오는 도중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라는 둥.

하루에도 몇 번이고 잘 있나 확인하고 또 확인하더니 며칠 전에는 맨 처음 우리집에 올 때 유충이었던 게 성충으로 되는 대변신을 했다. 탈바꿈을 한 것이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고 처음에 시큰둥했던 나도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었다. 아! 이것이 자연의 섭리인가… 이제야 아이들의 마음도 조금씩 이해하게 된다. 사슴벌레로 시작된 우리 집 동물식구는 금붕어, 이구아나, 장수풍뎅이 등 갈수록 늘어 가고 있다. 아이들의 동물사랑도 차곡차곡 쌓여가리라. 애지중지 정성을 다하는 것을 보면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넓게 포용하는 마음도 생기리라 기대해본다.

조예은 (부평구 삼산동)

기다림을 배우는 카메라

가끔 삶의 빈자리를 채우고 싶을 때 저는 카메라를 꺼내 듭니다. 오래되고 낡은 수동 카메라를 들고서 필름 1통을 다 채울 때까지 렌즈를 깨끗이 닦고 애정 어린 눈길로 피사체를 바라본 후 찰칵 소리와 함께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해 두고자 하는 바램. 곧이어 매끈하게 돌아가는 셔터소리로 새로운 장을 맞이하는 작업. 어떤 모습으로 내 생활과 추억은 기록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으로 밤잠을 설레던 날들.

하지만 최근 들어 사진찍는 게 예전만큼의 흥미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였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디지털 카메라를 장만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디카는 찍은 직후 결과 확인이 가능해 자판기 커피처럼 신속함과 편리함이 있지만 은은한 원두커피 향을 맡기 위해선 기다림이 필요하듯 수동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신중함, 인내심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새 모두들 디지털을 선호한다지만 아날로그가 가지고 있는 기다림으로 사진 속 따뜻함까지 전하고 싶습니다.

임진희 (부평구 청천동)

1만개가 모이는 그날까지

고1 때, 아는 선생님 미니홈페이지에서 사진들을 구경하다가 그 선생님이 찍으신 어느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의 제목은 '3학년 10반 현주의 아름다운 마음'. 사진에는 유리병 하나. 유리병 겉에는 '가져가지 말고 뚜껑 따서 넣어줘' 라는 메모지 한 장이 있었고, 유리병 속에는 캔 꼭지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음료수 캔 꼭지를 모으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선생님의 질문에 그 언니는 '캔 꼭지 1만 개를 모으면 휠체어 하나를 만들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선생님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3학년이라 공부하기 힘들텐데 어떻게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냐고 착하다며 칭찬해주셨답니다. 저도 그 언니의 마음씨에 감동받고 착한 마음씨를 본받아 반은 학교에서, 반은 집에서 캔 꼭지를 모으는 취미를 갖게 되었답니다. 1만개가 모이는 그 날까지. 아자 아자 파이팅!

이동민 (남구 주안3동)

편지와 일기쓰기

내 취미는 편지쓰기다. 부모님께, 애인에게, 친구에게, 군대간 남동생에게 등등… 편지를 써 그 사람에 대한 애정 표현을 한다. 요즘 같이 인터넷과 핸드폰이 발달한 시기에 편지는 구닥다리 취급을 받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연필로 한 자 한 자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내려 갈 때면 기분이 아주 좋아진다.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생각하고 아껴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또한 내 취미는 일기 쓰기다. 요즘 세상에 누가 일기를 쓰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일기는 개인의 역사이고 발자취인 것 같다. 몇 십 년 후, 내가 할머니가 되었을 때 내 청춘이 어떠했는지 알아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편지나 일기는 문장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맞춤법을 인식하게 되고, 문장을 올바르게 쓰는 훈련이 되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소중한 사람에게는 언제든 편지를 쓸 것이고, 또한 일기도 꾸준히 쓸 것이다.

김효정 (남구 학익2동)

다음달 글의 테마는 '생일'

다음달 테마는 '생일'입니다. 생일에 얽힌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사연을 글로 보내주세요(200자 원고지 3매). 사진은 주제와 관계없이 계절과 어울리는 재미있고 사연이 담긴 작품을 보내주세요. 책에 실린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보내드립니다. 게재된 사진을 돌려받기 원하시는 분에게는 돌려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_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 인터넷 신청 : www.incheon.go.kr → 화면 왼쪽 프레임 하단의 '월간 굿모닝인천' 메뉴 클릭 → 독자마당에 올려주세요. 마감은 6월 18일까지입니다. 응모하시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접수가 됩니다. (**문의** _ 440-2072)

info box

양귀비 · 대마 특별단속합니다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6월 30일까지 양귀비 · 대마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양귀비나 대마를 재배, 경작하거나 주변에 자생하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없이 양귀비나 대마를 재배, 판매,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엄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신고처** : 인천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 (860-4733~4738, 국번없이 127), 가까운 경찰서 및 보건소

문의 _ 인천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 (860-4733~4738)

인천사랑지도자아카데미 교육 열립니다

인천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인천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장, 품격 있는 시민생활문화가 주도하는 고장으로 만드는 것은 시민 모두의 몫입니다. 주인의 측면에서 인천사랑을 널리 알리고, 시민에게 확산시키는 계기를 인천사랑지도자아카데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인천시민 누구나
- **모집인원** : 매회 30명
- **내용** : 강의6강 / 소그룹활동 / 현장답사 / 인천의 역사 / 문화 / 환경 / 미래 / 인천사랑운동의 기본이해 / 시민생활문화 등
- **운영의 원칙** : 자발적 참여의 원칙 / 민주적 운영의 원칙 / 소그룹 운영의 원칙 / 규율준수의 원칙
- **교육비** : 무료
- **교육 횟수 및 일정**

일 정	대 상	내 용	비 고
6.13~15 (화 · 수 · 목)	일반시민	기본교육	3일 과정 (오전10시~오후3시30분)
7.25~26 (화 · 수)	청소년	체험활동	1박2일
8.8~9 (화 · 수)			
9.5~7 (화 · 수 · 목)	일반시민	기본교육	3일 과정 (오전10시~오후3시30분)
10.17~19 (화 · 수 · 목)			
11.7~9 (화 · 수 · 목)			
11.21~23 (화 · 수 · 목)	기본교육수료자	심화교육	

문의 _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439-0493~5)

부부교실 세미나 열립니다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인천지부에서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부부교실 세미나를 엽니다. 현재 결혼을 했거나 결혼에 관심 있는 미혼남녀까지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 **일시 및 내용**
  - 6월 13일(화) 오후 12시 30분~오후 5시 : 부부대화법(이희범 지구촌가정훈련원 원장), 부부의 성(박병은 한사랑 기독 상담실장)
  - 6월 20일(화) 오후 12시 30분~오후 5시 : 부부의 성향(남근형 인천 생명의 전화 원장 · 인천 성서신학원 교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추부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소장)
- **장소** : 숭의감리교회 갈릴리 친교실
- **참가비** : 무료

문의 _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인천지부 (438-1113~4)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신입생 모집

〈석사학위과정〉

- **모집전공** : 경영 · 무역, 부동산관리 ○○명
- **수업연한** : 2년(4학기) 화 · 목요일, 오후 6시30분~오후 9시45분
- **지원자격**
  -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자
  -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고사
- **원서교부 및 접수** : 5월 29일(월)~6월 7일(수)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반명함판 사진 3매 부착) 1부,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재직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 _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교학부 (770-8502~3, www.incheon.ac.kr)

검정고시 무료 교육

용마루학교는 우리시와 교육청의 국고 지원을 받아 인하대학교 인하선도회 동아리에서 운영하는 야학교입니다. 용마루학교는 모든 수업 일체를 무료로 시행해 배움의 기회를 놓친 지역 주민들께 교육의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 **수업 내용 및 과정**
  - 진반(고등학교)과 선반(중학교), 두 반으로 운영되며 검정고시 획득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 **학생모집** : 진반(고등학교 과정 교육), 선반(중학교 과정 교육)
- **모집기간** : 6월 30일(금)까지
- **위치** : 남구 숭의 2동 구-인천교대부속초등학교 내 어린이도서관 2층

문의 _ 용마루 학교 (863-7783, 18시부터 22시까지 통화가능)

추천해주세요

관공서나 예술단체에서 주관하는 문화예술활동이 아닌 동네나 아파트, 모임 등에서 자발적으로 기획해서 진행하는 순수한 '작은 문화예술활동'을 추천해주세요. 예를 들어 송도풍림아이원 마을음악회, 권경애 씨 집 '철쭉음악회' 등 입니다. 〈굿모닝인천〉 취재 대상으로 채택된 추천건에 대해 문화상품권(1만원권) 3장을 드립니다. **보내주실 곳** _ meehee99@hanmail.net (440-2073)

인천의료원 6월 무료검진 안내

인천광역시 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의료소외계층 및 시민에게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간 및 장소**
  - 6월 12일(월)~16일(금) 인천광역시 의료원 1층 (건강관리과)
  - 6월 19일(월)~23일(금) 인천광역시 의료원 3층 (안과)
- **진료시간** :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 **검진명 및 인원**
  - 비만도측정 (건강관리과) 50명
  - 백내장 및 녹내장 검사 (안과) 100명

※신분증은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_ 인천광역시 의료원 총무인사팀 (580-6478, 580-6651~5)

MBTI를 통한 자녀 학습지도 워크샵 열립니다

사람마다 개성과 성격이 다르듯이 학습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는 MBTI 검사를 통해서 부모의 성격을 알아보고 성격에 따른 자녀지도 방법과 아이의 성격에 따른 학습법을 알아보는 교육을 마련합니다

- **일시** : 6월 15일(목)~16일(금)
- **시간** : 오전 9시 30분~오후 1시
- **대상** : 초, 중, 고 자녀를 둔 학부모
- **장소** : 인천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내 강의실
- **참가비** : 2만원(검사비포함)
- **신청** : 전화로 신청가능

문의 _ 인천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429-5562~3)

시청 종합민원실 임시 이전합니다

인천시청 종합민원실은 1993년 건축 이후 개보수가 되지 않은 채 263만 시민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이 자긍심과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시청 종합민원실을 내실있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종합민원실이 본관 충무시설(지하1층)로 임시 이전하여 운영됩니다.

- **이전 내용**
  - 임시민원실 운영기간 : 6월 5일(월)~7월 28일(금)(예정)
  - 이전장소 : 시청 본관 지하1층
  - 업무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토, 공휴일 제외)
- **이전이 곤란한 여권제작실, 우체국, 우리은행은 현 위치에서 업무 수행**

※6월 1일부터는 계양구청이 여권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돼 여권접수 가능(450-6701~2).

문의 _ 시 총무과 (440-2460)

운전면허 취소처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실시

- **교육근거** : 도로교통법 제 73조 2항(2005. 5. 31 개정)
- **시행일자** : 2006년 6월 1일
- **교육대상**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교육장소**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시 · 도지부 교통안전교육장 (연수구 옥련동 563-4번지 인천 송도교육장)
- **교육시기**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자동차운전면허 기능시험에 응시하기 전까지
- **취소 사유별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과정별 6시간교육, 교육비 24,000원)
  - 음주취소반 : 음주운전, 음주측정불응, 음주사고 등 음주와 관련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
  - 법규취소반 : 음주관련 취소 이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 **경과조치** : 2006년 6월 1일 이전에 교통안전교육기관(운전면허시험장, 자동차운전학원 등)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응시전 교육 : 3시간)을 이수한 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취소처분자 과정 : 6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교육 일정 및 문의**
  - 법규반 : 화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 음주반 : 월 ·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인천지부 홈페이지(www.rtsa.or.kr)를 통해 게재 예정

문의 _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인천지부 (830-6168~9)

엄마가 함께하는 우리아이 영어교육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는 '엄마가 함께하는 우리아이 영어교육'이라는 주제로 초등영어교육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 **일시** : 6월 22일(목) 오전 10시~12시
- **장소** : 여성문화회관
- **강사** : 김미영 (초등영어교육 전문가. 뉴욕 Fordham University 교육대학원에서 TESOL로 교육학 석사 학위 취득)
- **대상 및 인원** : 6세~초등학교 6학년 어머니 선착순 300명
- **신청방법** : 센터 홈페이지(www.icice.or.kr)에서 사전등록

한편 인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강좌를 개설합니다. 인천 거주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강좌를 들을 수 있으며 국제교류센터는 현재 강좌를 맡아서 진행할 자원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 **대상** : 인천 거주 외국인
- **기간** : 6월 12일(월)~9월 1일(금)(12주간)
- **장소** : (재)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 회의실
- **수업정원** : 10~12명
- **수업일시** : 초급(월 · 수 · 금) 오후 6시~오후 7시 30분
  중급(화 · 목) 오전 11시~오후 12시 30분

문의 _ 시 국제교류센터 (441-8164)

In-Joy Asia, Incheon Festival (인천 이주노동자/이주민 체육대회)

인천에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 및 이주민 체육대회가 국제교류센터 주최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인천내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 7군데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주최하는 행사로서 외국인들과 인천시민들이 하나가 되는 체험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일시** : 6월 4일(일) 오전 9시~오후 6시
- **장소** : 인천대학교 대운동장
- **주요 프로그램** : 축구, 농구, 크리켓, 여성축구, 여성피구, 명랑운동회 등
- **부대행사** : 노래자랑 · 장기자랑, 나눔장터, 무료약국, 페이스페인팅, 경품추첨 등
- **상 품** : 참가자 기념품 및 종목별 우승상품
- **참가문의** : 방글라데시(765-1094), 필리핀 · 몽골 · 라틴 · 우즈벡 · 인도(464-6147), 파키스탄 · 태국 · 네팔(874-3613), 스리랑카 · 인도네시아(576-8114), 베트남(819-7272), 외국인 원어민 강사 · 인천시민(441-7915), 외국인 유학생(880-4099)

북경 · 상해에서 공부해요

인천일보사와 함께하는 제4기 북경~상해 중국어학연수프로그램이 중국 2대 도시(북경, 상해)에서 열립니다.

- **교육일정** : 7월 27일(목)~8월 10일(목)
- **모집인원 및 자격**
  - 총 인원 : 80명(초등학생 4학년~고등학교 2학년)
    ▷초급반 :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학생
    ▷중급반 : 초급반을 마친 수준의 학생
- **접수마감** : 7월 5일까지 선착순
- **프로그램**
  - 어학연수, 중국문화학습 체험, 중국교사와 합숙, 명승지 탐방, 중국 야간열차 타고 환상 여행 등

문의 _ 인천일보사 기획관리실 중국어학연수팀
(452-0135~8, FAX 763-7639)

자동차 사고 유자녀(幼子女) 등 지원 안내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유자녀(幼子女)에게 생활자금의 무이자 대출과 피부양노부모 및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피부양보조금과 재활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자**
  - 생활자금 대출 :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이하)의 자녀
  - 재활 보조금 :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 피부양보조금 :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부모
  - 장학금 : 성적우수장학생(매년 3월, 9월 신청), 특기장학생(매년 3월 신청)
- **지원요건**
  -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수급자 포함)이거나 다음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 소득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아래금액 이하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금액(원/월)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 재산 : 가구당 재산 7,000만원 이하(옹진 · 강화군 6,500만원 이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지를 같이 하고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친족

- **지원금액**

지 원 구 분	지 원 대 상	지 원 금 액	지 원 기 간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0세부터 18세미만의 유자녀(幼子女)	월 20만원/인	18세가 되는 달까지(고교재학의 경우 20세가 되는 달)
재활보조금 지급	1~4급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월 15만원/인	1년 단위로 지원하며, 기간 만료후 재심사하여 계속 지원
피부양보조금 지급	65세 이상의 피부양노부모	월 15만원/인	
장학금	중학생	분기별 20만원/인	성적장학금(3월 신청 - 4월, 5월) (9월 신청 - 10월, 11월)
	고등학생	30만원/인	특기장학금(3월 신청 - 4월, 5월, 8월, 11월)분기별

-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연중 수시(토요일, 공휴일 제외. 우편 접수 가능하며, 도착일을 접수일로 함) 장학금은 3월, 9월
  - 신청장소 :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080-749-7171, 833-6700 담당자 : 정명숙, 강신열)

문의 _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080-749-7171, 833-6700)

여성가장, 자활훈련 미용(자격증반) 국비무료교육

동인천미용학원에서는 여성가장 또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미용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국비를 지원받아 교육하고 있습니다. 수강료와 재료비 전액 무료이며 매월 교통비, 식비, 가족수당, 가계보조금이 지급됩니다.

- **교육일시** : 6월 12일(월)~12월 11일(월)
- **모집기간** : 6월 1일(목)~6월 16일(금)
- **교육대상자**
  - 여성가장, 본인이 세대주 또는 생계 책임자, 고용보험적용자(7명), 고용보험미적용자(8명), 자활(기초생활수급자 3명)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구직등록필증(고용안정센터 발급), 호적등본, 본인명의 우체국통장 사본, 반명함판 사진 4매, 재산세납부증명서(동사무소 발급)

문의 _ 동인천미용학원 (762-7455, www.incheonhair.com)

2006 어린이 교통안전 그림그리기대회 열립니다

교통안전관리공단주최로 어린이 교통안전 그림그리기대회가 열립니다.

- **일시** : 6월 8일(목) 오후 12시 30분~오후 6시
  (비 올시 6월 9일(금))
- **장소** : 중앙어린이교통공원(남구 관교동 인천종합터미널역)
- **참가대상** : 초등학교 어린이 중 학교장 추천자
- **추천인원** : 각 초등학교별 6명 이내(1~3학년 3명, 5~6학년 3명)
- **참가부분** : 자유주제
  - 그리기 도구 및 재료는 참가자가 지참
  - 도화지 : 행사당일 행사장에서 배부함(공단 검인용)
- **작품내용**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어린이들의 밝고 명랑한 교통안전생활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 **참가신청** : 6월 1일(목)까지(우편 또는 전송)
  - 주소 : 우 402-040 인천시 남구 학익동 587-76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안전관리팀)
- **심사방법** :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 위촉 및 비공개 심사
- **시상내역**

부 문	대 상		금 상	은 상	동 상
훈 격	시 장	교육감	이사장	지사장	지사장
인 원	2명	4명	10명	20명	30명

- **시상** : 당일 행사장에서 입상자 발표, 상장 및 상품 수여

문의 _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831-4492)

향기 나는 사랑의 책 배달부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경제침체 및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확대와 이혼으로 인해 한 부모 가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의 경우 늦은 시간까지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자녀에 대한 부실한 교육 및 아동학대(방임)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소지가 큽니다. 이에 따라 여성복지관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을 하교 후 돌봐줄 수 있는 '향기 나는 책 배달부'를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 아동분야 봉사에 관심있는 자원봉사자 누구나
- **봉사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중 초등학생 아동
- **봉사내용** : 독서활동, 대화나누기, 학습(안전)지도 등
- **봉사방법** : 주1회 1~2시간 가정방문, 아동의 하교 후 자유롭게

문의 및 접수 _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상담실 (434-6436~7)

2006 인천 청소년문화 대축제 열립니다

국제도시 인천을 이끌어갈 우리시 63만 청소년들의 문화역량을 한자리에 모아 청소년 문화의 건강성과 역동성을 널리 알리고 단순 관람의 공연만이 아닌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병행추진함으로써 청소년의 참여와 자치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인천 청소년 문화대축제가 열립니다.

- **일시** : 6월 10일(토) 오전 10시~오후 9시
- **장소** : 인천대공원 야외음악당 일원
- **내용** : 전시마당, 참여마당(한지공예, 민속놀이 등), E-sports, X-game, 그래피티, B-Boy 공연, 청소년영화 상영, SBS라디오 공개방송(MC : 라이언 · 미나, 버즈, KCM 등 출연) 등

구 분	행 사 명	시 간	장 소
식전 행사	청소년 축하공연	17:00~17:20	야외음악당
	사물놀이 공연	17:20~17:40	
	B-Boy 공연	17:40~18:00	
본 행사	인천 영상물 상영	18:00~18:03	
	개식선언 및 내빈소개	18:04~18:07	
	청소년헌장 낭독	18:08~18:12	
	청소년표창 시상	18:13~18:35	
	대회사 및 축사	18:36~18:50	
식후 행사	SBS라디오 특집 공개방송	19:00~21:00	
	불꽃놀이	21:00~21:05	
부대 행사	전시마당 청소년동아리 홍보	14:00~18:00	야외음악당 주변 광장
	전시마당 청소년 단체		
	전시마당 청소년사업 홍보		
	참여마당 한지공예마당	15:00~18:00	
	참여마당 민속놀이마당		
	참여마당 민속의상체험마당		
	참여마당 전통 탈 체험마당		
	참여마당 웰빙마당		
	체험마당 E-Sports 게임대전	10:00~12:30	
	체험마당 X-Game 시범	13:00~15:00	
	체험마당 그래피티 체험	13:00~18:00	
	체험마당 페이스페인팅	10:00~18:00	
	체험마당 아트풍선		
	체험마당 캐리커쳐		
	체험마당 네일아트		
	특별마당 청소년영화 상영	15:10~16:50	야외음악당

문의 _ 시 가정청소년과 (440-3966)

가족사랑 나누기 '일촌과 파도타기' 참가자 모집

화수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저출산 가정의 자녀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가족사랑을 나누고자 '일촌과 파도타기'인성교육 캠프를 진행합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성격검사 MMTIC와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의사소통 교육, 공동체 활동, 봉사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인성교육 '일촌과 파도타기'의 활동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과 사회성을 형성하여 청소년문제 예방의 시간을 갖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일시** : 7월 26일(수)~28일(금) (2박3일)
- **대상** : 저출산(자녀 2인 이하) 가정의 초등 3~6학년
- **모집기간** : 6월 17일(토)까지
- **장소** : 무봉산청소년수련원
- **참가비** : 15,000원 (선착순 접수 40명)
- **내용**
  - 7월 8일(토) : MMTIC(성격검사)
  - 7월 15일(토) : 분과활동 및 가족사랑 교육
  - 7월 22일(토) : 사전교육
  - 7월 26일(수)~28일(금) : 의사소통 교육, 봉사활동, 공동체 활동, 대가족 만들기 등

문의 _ 화수청소년문화의집 (762-7942 담당자 최은옥)

생계침해형 부조리 집중 단속합니다

최근 사회양극화로 인해 우리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생계침해형 부조리가 심화되어 시민생활고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와 우리시에서는 금년을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의 해'로 지정하였습니다. 금품 · 임금착취, 과다소개료, 불법 직업소개, 취업사기, 성피해, 불공정 계약, 불법 사금융 등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8대 부조리를 정부 및 지자체, 검찰, 경찰 등과 합동으로 6월부터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피해사례 접수 및 문의 _ 시 경제정책과(440-2792~2794)

부평풍물축제 일정

월일	주제별	시간별 행사진행 상황		장 소
6월 7일(수)	전야제	19:30 KBS국악관현악단, 안숙선, 안치환 외		신트리공원
6월 8일(목)	축제개막식 경연대회	09:30 축제 개막식 10:30 부평구 동 풍물경연대회	13:00 부평골민속그네뛰기대회	신트리 공원
6월 9일(금)	경연대회	10:00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	18:00 국악한마당	부평구청, 신트리공원
6월 10일(토)	상생의 장 (풍물마당)	14:00 국내/해외초청공연 16:00 국내/해외초청공연 17:00 풍물명인전 18:00 줄타기 공연	19:00 거리축제개막식 19:30 개막축하공연 22:00 주제공연/ 해외공연	문화빌딩 앞
	교류의 장 (놀이마당)	11:00 경기평택농악 13:00 임실좌도 필봉농악 14:00 강릉농악	15:00 청주농악 16:00 진주삼천포농악 17:00 부평삼산두레농악	문화의 거리 입구
	만남의 장 (참여마당)	13:00 부평난장 2006(프린지축제) 16:00 Youth페스티발(전통성년식)	18:00 우리춤 우리가락(국악한마당) 19:00 수도권지역참여단체공연	참여마당
	경연대회	10:00 전국학생풍물경연대회 / 인천학생풍물경연대회		축제경연장 서초등학교
	공존의 장 (예술무대)	11:00 어린이인형극 15:00 가족무대 17:00 춤과 마임 I	18:00 올스타밴드공연 19:00 테마공연 (Mix&Culture)	롯데백화점 문화의 거리
6월 11일(일)	상생의 장 (풍물마당)	14:00 국내/해외초청공연 16:00 국내/해외초청공연 17:00 풍물명인전	18:00 줄타기공연 19:00 주제공연	문화빌딩앞
	교류의 장 (놀이마당)	11:00 강화용두레질노래 13:00 전라우도 이리농악 14:00 충남 노성현 두레풍장	15:00 원주 매지농악 16:00 금릉 빗내농악 17:00 남사당놀이	문화의 거리 입구
	만남의 장 (참여마당)	11:00 수도권지역참여단체공연 14:00 2006 부평구 주부가요열창	16:00 부평난장 2006(프린지축제) 20:00 초청공연(미8군 군악대)	참여마당
	경연대회	10:00 전국학생풍물경연대회 / 인천학생풍물경연대회		축제경연장 서초등학교
	공존의 장 (예술무대)	11:00 어린이 인형극 15:00 가족무대 16:00 춤과 마임 II	17:00 작은음악회 19:00 테마공연(Mix&Culture)	롯데백화점 문화의 거리
	대동마당		21:00 만 · 만 · 세	부평대로
부대행사	거리 행사장	지역경제활성화행사, 지역단체참여행사, 축제사진공모전, 부평골왕장기대회, 부평구씨름왕선발대회, 부평골민속 그네뛰기대회, 부평사랑행사, 우표전시회, 상설 및 전시행사, Net-Work 자매도시 전시행사, 부평예술인회 참여행사 등		

6월, 그들은 다시 살아난다

"돌격 앞으로! 김일병, 엄호하라…진지를 사수하라!"
바람결에 전우들의 고함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눈을 부릅뜬 병사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이 오버랩됩니다.
허리 휘고 다리에 힘 빠져 이젠 소총대신 지팡이를 든 그들이지만
동상 앞에 서니 불현듯 손에 다시 힘이 들어갑니다.
'노병(老兵)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그러나 사라지는게 어디 노병뿐이랴…
호국정신도… 이데올로기도… 이젠 단지 기념관 벽에 걸린 구호일 뿐입니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서)

글 · 사진 유동현 (본지 편집장)

Go for 2014 INCHEON

인천의 아들
2014 아시안게임 유치위해 뛴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동아대 문대성 교수와
삼성생명 유승민 선수가 2014년 아시안게임 인천 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구월중학교에서 태권도를 시작한 문대성과
도화초등학교에서 처음 탁구라켓을 쥔 유승민은
고향 인천이 2014년 아시안게임을 반드시 유치하는데 힘을 보태기 위해
아시안게임 유치 홍보대사가 되었다.

Asian Games
INCHEON 2014
CANDIDATE CITY